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07/08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kdta@cholli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라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장찬과 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시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살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어났던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한국보육교사회

우리네 아이들

통권 88호 2002년 07/08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묶은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2년 7월 15일

2	권두언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기원
4	보육정책 1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3 - 일본 편	보육정책위
9	보육정책 2	민선 3기 단체장의 보육정책과 우리 회의 의견	보육정책위
15	보육논평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을 바라보며	편집부
17	특집 1	한국보육교사회 2002 여름수련회 "참여, 신명 그리고 전진!"	편집부
32	특집 2	이런 휴가 어때요 - 무딘 머리를 깨는 휴가	편집부
36	특별강연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지도	정미란
48	현장교육	천연염색을 하면서	강영신
51	현장소식 1	서울지부의 꿀든밸을 울려라 !	박인해
52	현장소식 2	나는 보육교사회가 좋다 !	류지민
53	현장소식 3	우리 남편이요 [기쁘다 내조상]을 받았어요.	김숙연
55	어린이와 건강	새터 어린이집의 아동건강에 관한 민간요법	김정온
61	인물탐방기	(포구나무 어린이집) 김진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김정애
63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평동어린이집의 아이들	윤금주
64	아이들과의 하루	아기 참새가 나에게로 온 의미는 뭘까?	김숙자
66	좋은 그림책소개	바람이 휙, 바람이 와	고영미
68	세상읽기	꿈은 이루어진다.	이선미
69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휴식을 위하여.	이윤경
72	목소리	아주 작은 실천, 너무나도 큰 기쁨! 텃밭 가꾸기!	고정미
74	알림난		편집부
78	보육계동향		편집부
80	소식과 소식		편집부
85	편집부에서		편집부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기원 · 본회 공동대표

아직 꽉 찬 나이는 아니지만, 10년 전 문득 문득 부르다 눈시울이 붉어진 노래 가락을 오늘도 흥얼거린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던.."

왜 이 노래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노래가사 뿐 아니라 그 노래를 함께 부르던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권두언을 회원수련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와- 그때 그 얼굴, 너무도 반가운 그 얼굴들.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이후에 들어온 회원들은 경험을 못해봤겠지만 그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때 가장 큰 사업 중 으뜸은 회원수련회였다. 물론 조직사업측면에서 보자면 회원수련회는 당연 으뜸이 되어야겠으나 그 으뜸을 있게 해주는 일등공신은 바로 회원들 자신이었기에 그 시기만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보고자 하는 그리움이 사무치곤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동학산장에서 나누었던 회원수련회로 계룡산을 등반하며 함께 했던 끈끈함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 수련회는 아니었으나 공주 부여에서 개최한 총회에 밤새 내린 폭설로 참가자 전원이 눈발에서 하나되었던 기억이겠다.

그 기억을 뒤로하고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수련회를 2002년에 개최한다니 가슴이 설레인다.

여름 끝자락 8월에 드넓은 변산반도에서 펼쳐지는 올 회원수련회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느끼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공통분모인 보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치?사회적 생명으로 만난다는 것이다. 실제 보육현장에서의 치열한(?) 생활에서 벗어나 좀더 큰 '나와 우리'를 만나고 느끼는 만남이야말로 어떤 짜여진 연수보다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무색의 도화지 같은 연수가 아닐까 싶다. 그 도화지에 그려진 밑그림을 토대로 우리 회원들이 채워가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수련회 그림을 완성했으면 한다.

그 그림에 많은 얼굴들이 채워졌으면 한다.

하나는 그리운 얼굴들이다.

현재 보육현장은 떠났으나 십수년간 보육현장에서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동지들이다. 여기서 동지란 남녀노소, 나이여하와 상관없이 '육아의 사회화'라는 대명제를 향해 함께 해 온 소중한 나의, 우리의 동지들을 이제는 만나고 싶다.

또 하나는 새로운 얼굴들과의 만남이다.

아직 보육교사회라는 이름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1~2년차 회원들과의 만남이다. 실제 활동하다 보면 1,2년차 회원들과의 만남이 공식적인 자리(총회, 연수 등)에서만 이루어져 항시 뭔가 아쉬움이 남곤 했다. 올 수련회는 전국각지의 보육교사 선배들과 애정과 열정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는 자리이기에 새로운 얼굴들과 진하게 만나고 싶다.

그 얼굴들과 우리 보육교사회를 느끼고 채워가고 싶다.

여전히 열악한 보육현장이지만 우리나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 만남의 장에서 반가운 얼굴, 그리운 얼굴, 만나고 싶었던 얼굴들이 모여 10년 전부터 올조리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서로를 확인하고 싶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 준 너의
전화 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눈으로 나는 늘
동지라 불렀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네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3 - 일본 편

정리 보육정책위

1. 들어가는 말 >>>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일본의 보육정책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 일본의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34명으로(2001년은 1.41명) 이는 저출산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한국 1.42명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면 한 가정 내에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소자화(少子化)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녀를 낳게 하고 키우는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엔젤플랜은 영아보육 확대를 통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저하되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조금씩 문제를 개선하면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발전이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육욕구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달려온 일본 보육제도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변화와 보육제도의 변화 과정

1. 빈곤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

- 1947년 일본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제도화된다. 이전에도 탁아소가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보육시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을 보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종의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띠게 된다. 195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육이 결손 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는데 가정제일주의 라는 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영유아를 보육한다는 자체가 결손 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맞벌이 증명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가정의 보육이 결손 된 아동을 지역 보육소로 "조치" 하고 조치비를 지급하였다. 말하자면 보육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증명되는 영유아는 행정기관이 보육소를 지정하여 보내고 보육소 이용비용을 정부가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제도는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소가 확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여성노동력 확보와 보육제도(60~70년대)

-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를 맞아 경제적 고도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도성장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연결된다. 생계를 위한 빈곤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중산층 여성까지도 점차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된다.(1977년 총리부 통계에 의하면 15세이상 여성의 46.7%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게 되는데 노동조합 연합체인 총평부인회는 "우체통과 같은 숫자의 보육시설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시설 확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동사무소 하나마다 탁아소를' 이라는 구호로 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한 것이 1980년대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보육소들은 대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정부의 요구와도 일치하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시기에 여성노동은 어디까지나 보조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영아를 키우는 책임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소는 8시간-10시간 정도 운영하며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주로 보육하였다.

3. 여성의 사회진출의 보편화와 보육제도(80년대)

- 1975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많은 나라의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협약의 중요 내용에는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 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1985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고(한국은 1987년)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는 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아보육, 야간보육, 연장보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4. 저출산과 지역사회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

-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핵가족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아동양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가족성원내에 양육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양육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양육의 문제가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서도 나

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조치된 아동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들의 양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저출산의 문제 또한, 단순히 맞벌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곧 조치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치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호자 및 보육시설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권력에 의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 그에 대해 일정수준과 동시에 일률적인 보육을 보장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시설에 조치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별적 보육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각 보육시설에서 거의 비슷한 보육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조치제도상의 보육제도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조치비는 보육소 운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며 보호자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입소알선과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내용을 결정하고 보호자는 시설을 선택하며 정부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유아기관이 존재하며 후생성(한국의 복지부)과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이라는 두 개의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수요를 시설을 통해 확대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동시에 조치제도나 보육비용 차등지원을 통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공공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엔젤플랜(1995년~1999년)과 신엔젤플랜(2000년~)

엔젤플랜은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소자화(少子化)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1994년 12월 16일 문부성 · 후생성 · 노동성 · 건설성의 4개 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얻어 만들어진 자녀양육지원 정책이다. 물론 엔젤플랜 이전에도 출산, 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었다. 1991년 제정된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은 기존의 모성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母 또는 父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의 2자녀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지급대상을 3세미만으로 그리고 지급액은 1~2자녀는 5천엔, 3자녀는 1만엔으로 규정하였다. 1994년에는 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25%를 지불하며, 피고용인 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발표된 엔젤플랜의 구체적 목적은 母의 취업 중 아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에 유리하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에 있어서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감정발달 및 사회화 교육 강조, 부모의 아동양육 비용 감소 등이다. 공적 자원을 통해 양육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5개년 긴급아동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성평등사회를 위한 기본법"과 고용평등법을 각각 재정하였다. 엔젤플랜의 내용에는 저연령아(0-2세) 보육의 추진, 18:00 이후의 연장보육시설의 증설, 긴급 일시보육시설의 증설, 영유아

건강지원 데이 서비스사업의 촉진, 방과후 아동클럽의 증설, 다기능 보육소의 정비촉진, 가족지원센터의 증설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엔젤플랜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리고 엔젤플랜의 후속으로 1999년 12월 18일, 2000년 4월부터의 5개년 소자화 대책을 위한 신엔젤플랜이 발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신엔젤플랜은 대장성 · 문부성 · 후생성 · 노동성 · 건설성 · 자치성의 6개 부처의 장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엔젤플랜 때 보다 2개 부처 장관이 더 참가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의 소자화 문제가 국가 · 사회적인 위기요소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정부주도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엔젤플랜의 주된 내용은 1)보육서비스 등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충실, 2)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 3)일하는 데 있어 고정적인 성별역할분업이나 직장 우선의 기업풍토 시정, 4)모자보건의료 체제의 정비, 5)지역에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정비, 6)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의 실현, 7)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8)주택 만들기와 지역 만들기에 의한 자녀양육지원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다. 이중에서 특히 1)보육서비스 등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이라는 내용에 따른 세부항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저연령아(0-2세)의 보육소 입소의 확대, (2)다양한 수요에 응한 보육서비스의 추진- 연장보육, 휴일보육의 추진 등, (3)기관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어린이도 포함한 자녀양육지원의 추진-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일시보육, 훼미리서포트센터 등의 추진, (4)방과후 아동클럽의 추진이다. 이밖에 2000년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40%(종전 25%)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세에서 6세로 연장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사회변화와 보육제도의 발전 가능성

처음 외국의 보육제도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보육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아도 일본사회의 양육과 관련된 사회환경, 가정환경의 변화와 부모들의 욕구 변화속에서 보육제도가 시작되고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엔젤플랜은 정부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양육지원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보육제도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저출산의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보육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는 변화해야하는 지에 대한 전망을 일본의 경험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여성부에서 발간한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1960년 6.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불과 40년만에 1.42명(1999년 통계청 산출자료)으로 급격한 저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70년 368만명에서 2000년 90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초혼 연령은 1960년 여성 21.6세에서 2000년 26.5세로 높아졌다.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91년에는 90.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2000년에는 불과 58.1%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지속적인 출산저하는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을 낳는다. 따라서 출산저하의 문제를 인구정책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의 과제와 연계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가족친화적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성평등을 강조하는 각종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유급육아휴직제, 유급모성휴직제, 가족수당, 아동수당,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아동보호시간연장, 방과후 아동보호 확대, 교육 및 주택보조, 세금감면,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자녀양육의 양성분담을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보육문제를 보육시설의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제도가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되고 일하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설확대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여성 취업의 증가와 결혼,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 산업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에서 나타나는 양육환경의 변화를 주목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보육이 결손 된 무엇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가정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가능하다.

결국 보육제도의 발전 가능성은 보육의 문제를 다양한 사회와 가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지역보육운동 / 스즈끼 쇼조 / 주민자치사 / 1994년

일본의 유보일원화 논쟁에 대한 일 고찰 / 최영신 /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10집/ 1997년

일본의 보육과 보육제도 / 에다모토 신이치로/ 우리네아이들 / 2000년 11,12월호

일본의 특별보육제도 검토 / 강란혜 / 2002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논문

UN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0년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 여성부 / 2001년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 여성부 대외협력국 / 2001년

일본의 유아교육제도와 실태 및 보육정책 / 신춘선 / 서울시보육정보센타 사이버강의자료

민선 3기 단체장의 보육정책과 우리 회의 의견

정리 보육정책위

아래의 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단체장의 보육정책을 소개하며 더불어 우리 회의 지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시책에 대한 의견서〉

이번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명박 시장의 보육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지원 확대, ②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확충, ③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④보육기자재 현대화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⑤ 보육환경 개선 지원, ⑥ 영양관리를 위한 보건소 영양사 확보 등이 영유아보육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는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정 감시를 통해 공약의 실천을 점검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서울시에 영아 전담시설은 13개소이며 장애아 전담시설은 10개소로 보육요구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충과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가 과제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아전담시설과 민간시설 중 영아보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의 시설규모가 크고(전담시설은 영아 상시 30인이상, 영아반 3개반 이상), 보육요구가 높아지는 12개월미만 어린이 보육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가 추가예산지원기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영아반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복지부 2002년 추가지원기준에서 영아전담시설 규모를 상시영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와는 다른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기존의 보육시설 유휴공간의 활용차원이 아닌 방과후보육전담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특수, 취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별로 특수보육전담시설(영아, 장애아, 방과후, 24시간)을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시설 설치를 할 때는 서울시의 보육수요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각 전담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기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과 교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종교시설의 영유아 보육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0여년간의 영유아보육정책을 평가할 때 현재의 과제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①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종교건물이 보육시설을 목적으로 설계, 건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하게 됩니다. 또 ② 현재 운영되는 많은 민간시설도 지원의 부족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책없이 신규 설치되는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경우 같은 민간시설간의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종교시설이 지역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육을 담당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③ 기관의 성격상 부모나 아이들,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정종교를 선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양적 확충의 방안으로 제시된 종교시설의 보육시설 설치 유도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과제로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부족한 특수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선 매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역의 보육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시설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시설도 보육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정부지원시설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인 시설, 종사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공유,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예결산에 대한 검토,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협력사항에 대한 검토를 주요안건으로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보육환경개선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방과후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0으로 조정해야합니다.
- 대체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휴가, 보수교육, 장기 병가의 경우 대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마다 대체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시설에서 요청하면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비상근 교사가 모든 정부지원시설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비상근 교사는 보육교사의 당직, 점심시간 보조, 교육에 대한 연구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오후4시 이후 남는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는 비상근 교사를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필요한 시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평균 10시간의 노동은 물론이고 당직인 경우 1일 12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는 어린이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어려움, 아동교육에 대한 연구와 준비 부족 등으로 어린이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남기고, 보육교사는 낮은 만족도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을 줄여야겠지만 운영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육문제는 보육현장의 종사자들과 보육행정 담당자들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 실천이 이루어져야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보장, 부모들의 믿을 수 있는 양육해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서비스 활성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지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땀으로 모아진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아이들의 미래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광주시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시책에 대한 의견서〉

이번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박광태 시장의 보육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별로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24시간 영유아전담 보육시설을 만들어 맞벌이 부부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도록 한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정 감시를 통해 공약의 실천을 점검하며 광주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육문제의 핵심인 출산과 육아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보육의 욕구로 인하여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 이후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많은 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되었으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지역의 보육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이 지역의 보육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육대상 아동 수, 산업구성, 주민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 등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보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강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마련과 제도 수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육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보육조례의 내용을 담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활동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활용, 국공립 시설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 국공립 및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빈부차이에 관계없이 국공립 시설에 다니든 민간 시설에 다니든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육 현장의 요구와 지역민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보육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보육위원회는 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영 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및 보건복지부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보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위원선정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여 회의 과정의 공개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광주시 보육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1인, 보육시설연합회 간부 5인(시설의 장 겸임), 보육관련 전문가 3인, 의사 1인, 부모대표 2인,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위원 선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보육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대표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시설의 장을 겸하고 있는 단체의 간부가 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구성으로는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없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부모,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동수로(예: 각 3명)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보육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과정과 제반 회의와 활동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동별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만 5세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보육 아동 중 보육료지원 아동 비율이 1995년 30.4%에서 2000년 20.8%(전국통계)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 개인별 지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고 그 밖에 아동별 지원 중 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두 자녀 보육아동 보육비 지원입니다.
   한 가정에서 동시에 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경우 부모의 부담은 두 배로 되며 경제활동에도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두 자녀 보육비 경감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보육비 경감이란 보육시설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맡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경감해주고 그 차액은 시 예산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36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특수보육서비스의 필요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아보육 또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전담시설의 영아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등 시설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 또한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몇 개의 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극히 한정적인 지원으로서 지원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 높은 보육료의 이유로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길 어려워하며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영아보육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모든 영아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영아의 아동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광주시 자체 보육시책 사업을 잠깐 살펴보면 보육 시설장 연찬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보육아동 현장학습수련회,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 운영,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장애아 영아 전담시설 교구교재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전국 보육인 대회 참여 차량 지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총 8가지의 보육 시책 중 아동별 지원 항목은 딱 한 가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 항목들을 살펴보면 주로 일회성과 행사위주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산의 쓰임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보다 지속적이며 꾸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아동 개개인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확대에 있습니다.

넷째, 보육 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매년 보육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도하여 현직 보육교사보다 많은 수의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는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공급 과잉은 보육교사의 저임금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 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 불안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발전 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보수 수준이 낮고 근무 연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며, 휴가나 사회보험 등의 제반 복지 제도가 미흡합니다. 특히 국공립 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경력이 오래되고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보육교사들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 보육교사들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교사의 관리 체계 및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 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우리 생활의 요구와 가장 가까운 과제로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통해 올바른 보육정책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전남지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을 바라보며

7월11일 신임 복건복지부장관으로 김성호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를 따지기 전에 먼저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복지부장관이 무려 7차례나 바뀐 점을 생각해 보면 신임장관의 임명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착잡함이 든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무릇 그 나라의 분배정의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가름하는 가장 좋은 척도이다. 복지는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나누어주어 희생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복지적 마인드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평균임기가 1년도 못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 발휘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에 퇴임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임 복지부장관은 많은 개혁과제와 문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임명되었다. 신임 장관이 중요한 각종 현안과 복지정책에 있어 소외받는 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써 복지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첫째,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한정된 재원을 수요자 요구에 적합하게 배분하고 둘째,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언론, 사회단체(NGO)를 우군으로 만들고 셋째,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며 넷째, 개혁의 혜택은 크게 하고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먼저 보육정책에 있어 공보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폭을 높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육수요자의 중요한 요구인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요구가 있는 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용부담의 문제와 보육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예산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복지예산은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도 충분히 보장하

고 있지 못하며 이는 앞으로 복지예산이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의 분배문제보다는 오히려 필요량의 복지예산 확보가 복지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올 초부터 보육문제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추가예산이 임시로 편성되기는 하였지만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보육교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걸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자격증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자격기준의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책자문단은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보육교사는 전체 자문단 36명중 4명에 불과하여 18명의 시설장이 자문단에 포함된 것을 생각하면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형평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소수라는 이유로 묻히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보육과 신설을 계기로 단기적 대응이나 아이디어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육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보육은 아직도 많은 예산과 정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보육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미래성원을 제대로 키우는 문제이다. 우리는 새로 임명된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보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챙기기 바란다. 또한 취임사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언론, 국회, 사회단체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수행과정뿐 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과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2002년 7월 16일

한국보육교사회

특집 1

한국보육교사회 2002 여름수련회

"참여, 신명 그리고 전진!"



여름 수련회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푸욱~

정리 · 편집부

특집 1 한국보육교사회 2002 여름수련회 "참여, 신명 그리고 전진!" 기사는 과거 수련회 추억에 대한 수다방과 지부자랑 글, 신입회원 김원희 선생님의 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지난 7월 3일 서울지역의 중견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보육교사회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활동을 하며 참가했던 수련회에 대한 추억담을 녹취한 글입니다.

수련회의 기억 속으로…

삼삼개 우리회 여름 수련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최근에는 여름에는 연수를 하고 겨울에 수련회와 총회를 하잖아.

풍강여지 계룡산이 마지막이었지 않나?

삼삼개 아냐, 아냐, 계룡산 갔다 와서 한 번 더 했어. 숭실대 계단에 앉아서 사진 찍은 기억이나. (사실 확인 해봐야해.)

삼삼개 계룡산에서 할 때 그 때 봉천의 정은진이 추적놀이 진행자였어.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도 했는데 중간에 추적놀이 지시대로 다 하고 산중간 계곡에서 했던 거 같아. 사전에 지역별로 노가바를 해 가지고 오라는 전달이 있었어. 그 때 봉천지역은 생각나,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로 노가바 했어. (노가바 내용까지 생각나요?) 상품이 씨***갈이라는 양주였어.

풍강여지 언니 별 걸 다 기억한다.

삼삼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현숙이 몰래 돌을 던지자--♪ 씨***갈도 가사로 들어갔는데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난 계곡에서 머리 빤(?) 것도 기억나는데. 너무 더워서.

(현숙이는 그 당시 지탁연의 회장이었던 최현숙 선생님입니다.)

나비 그럼, 지금 얘기한 봉천의 정은진 선생님은 지금은 뭐하셔?

삼삼개 애 키우고 다른 단체의 녹색가게 간사로 일하고 있어.

나비 그럼 그 때 봉천이 누구누구 있었던 거야? 씩씩이하고...

삼삼개 씩씩이 놀이방, 꽃동네 놀이방, 그리고 봉천동 애기방.

나비 꽃동네 놀이방?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난 그 이름은 처음 듣는데.

삼삼개 유명한 꽃동네 놀이방을 몰라? 대한민국 최초의 비닐하우스 놀이방인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웃음)

나비 그러면 그게 언제 없어진 거야?

삼삼개 94년도.

나비 나는 95년도부터 수련회에 갔었어.

올리브 95년이 민보련하고 같이 한 거였어요? 그럼 94년이 계룡산이고 93년이 숭실대야. 내가 93년부터 수련회에 갔었으니까. (나두나두) 93년 그 때 띠별로 모임했잖아. (맞아, 맞아)

민들레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않나나 봐.

풍강여지 그 때 왜 인간 탑쌓기도 하고 배구 게임도 했었어. (맞어)

삼삼개 그럼, 그게 마지막이겠네(회원수련회가)? 겨울에 저기 부여에 갔을 때, 흰 눈 내렸을 때. (그건 겨울이잖아.)

나비 그러니까 95년도가 지탁연에서 보육교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 조직전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구. 내 기억으로 나는 95년부터 보육교사회 행사에 빠진 적이 없거든. 근데 그 때는 수련회 형식으로 한 적이 별로 없고 총회 같은데서 지부별로 장기자랑하고 발표하고 이랬지. 여름에는 연수 말고 어디 멀리 가서 그런 건 없었어. 근데 그 때는 연수도 1박2일로 했었어. 지금처럼 하루가 아니라.

올리브 그 때 민보련이랑 같이 하고 나서부터 여름은 연수 중심으로 바뀐 거야. 노는(?) 수련회가 아니라.

나비 그 때(95년도)도 재미있었던 게 불광동에서 차 타고 들어갔었는데 나는 처음 연수에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사람들은 밤에 날씨가 더우니까 다들 밖에 나와서 삼삼오오 짝을지어 얘기했었어. 그 때 난 황호정을 처음 만났거든. 황호정하고 서미연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 처음 만들어서 개원한 지 얼마 안되었던 때야. 그 사람들도 처음 그 자리에 왔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서미연 선생님이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꼬시고.

삼삼개 우리는 항상 수련회 전에 먼저 지역끼리 M.T를 하고 수련회에 갔어.

풍강여지 그래, 그래서 수련회는 1박2일이었는데 우리는 2박3일이었지.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부분이 수련회 전에 1박 M.T를 하고 오거나 수련회 끝나고 지역M.T를 하러 가거나 그랬어.

삼삼개 그래서 지탁연 여름, 겨울 수련회가 우리 방학이었어. (그 때는 우리가 방학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다 받아줬지.)

풍강여지 민들레 언니는 언제부터 수련회에 참가했어요 ·

민들레 87년 10월부터 내가 일을 했었으니까 88년 여름수련회부터 갔을 거야.(진짜 초창기 멤버구나.)

풍강여지 그 때는 지탁연이 아니라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아니었나?

나비 아니야, 그 때도 지탁연이야. 87년도부터 지탁연이었어.

민들레 난 모여서 놀았던 거 밖에 기억이 안나. (어떻게 놀았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놀았던 거 같애. 저녁 때 거의 밤새다시피 마당에 모여 앉아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 밤새 수다도 떨고...

풍강여지 진짜 그 때는 밤마다, 물론 지금도 총회에 가면 그러긴 하는데 그 때는 참 징하게 술 마셨어.

민들레 그 때는 다 같이 먹는 분위기였어. 지부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같이 둘러앉아 먹는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숭실대 사회봉사관으로 수련회를 가면서 그 때부터는 지부별로 먹는 분위기였지.

삼삼개 난 숭실대도 갔었고,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할 때도 갔었다. 거긴 너무 더웠어. 거긴 재미있는 건 샤워실이 없어서 다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했었어. (그게 언제 였는데 · 언니는 언제부터 참가했는데?) 내가 지탁연 수련회에 결합한 게, 난 예전에 지탁연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어서...(저런 건 편집해.) (왜 지금은 적극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관찰아) 근데 내가 아니라 봉천지역이었어요.

풍강여지 맞아, 봉천 지역은 지탁연의 안티였어.
(봉천지역은 현재 서울지부로 통합되었으며 보육교사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랍니다. ^^)

삼삼개 그래서 영보법 진행될 때 수련회에 결합했어. 그 전에는 봉천은 결합을 안 했어. 89년도에 최초로 주혜민 선생님을 대표로 보냈었지. (수련회에) 난 92년도부터 간 거 같아.

나비 나는 교사회에서 노는 분위기를 처음 알았던 게 교육 끝나고 나서 대동놀이를 하는데 그 때도 고정미 선생님이 사회를 봤어. (그 때가 고정미가 뜰 때야) 어, 고정미 샘하고 인천의 몇몇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배우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가서에 공부하러 왔는데 끝까지 공부를 해야지 놀고 너무 느슨하게 운영이 되어서 싫다 좀더 타이트하게 해달라 이렇게 썼어. (지금은 어떠신가요?) 노는 게 좋아요. 아,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지금은 어떠세요?) 노는 게 좋아요~. (일동 웃음)

삼삼개 우리 회는 여름에는 멤버쉽을 다지며 노는 거고....

나비 아니, 두 시간인가 놀더라고. 고정미가 진행을 하는데...

올리브 두 시간이면 짧네. 다들 아쉽지.

나비 아니,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뒷뜰에서 잠 안자고 밤새 얘기하고....

삼삼개 그 때는 민보련하고 한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한 모양이네.

나비 내가 왜 그런 평가를 했나면 난 그 때 지탁연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다 같이 갔었거든. 그 때 생각해보니까 최순옥 선생님이 사무국에서 일할 때였어. 아~, 그 수련회?

풍강여지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수련회는 어디였어?(계룡산!) 언니도 계룡산이구나? 너는?

올리브 계룡산이랑 간 게 별로 없어서.... 그러나 부여 갔을 때 (건 겨울이야) 여름 수련회만 얘기해야 하는 거야?(아냐, 아냐)

삼삼개 맞아, 그 때 너무 좋았어. 흰눈이 펑펑 와서, 우리가 묵었던 곳이 유스호스텔인데 그 앞

이 벌판이었잖아.

올리브 그래, 그 벌판에 나가서 게임하고 놀았잖아. 그리고 림보게임 했는데 되게 잘하던 선생님 있었어.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허리가 진짜 유연했어. 누구였지?

몽강여지 전북의 금암에 있었던 키 작은 선생님 아니었나?
(혹 기억나시는 분은 중앙으로 연락주세요.)

나비 계룡산 얘기는 참 많이 하더라. 나도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

삼삼개 그 때는 정말 축제분위기였어.(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랄까 숭실대에서 배구를 했을 때는 사람을 뽑아서 일부가 게임을 했잖아. 근데 계룡산에서는 참가한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 거 같아.
또 약간의 경쟁심도 부추겼지. 지역별로 조를 구성해서 암튼 과제를 주고 그걸 해결하도록 계속 머리와 몸을 굴리게 했어. 추적놀이라는 게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댔지.

몽강여지 그 때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다른 데하고 같이 조를 짰잖아.

삼삼개 그래, 진주의 농촌탁아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가 되어서 재밌었지.

몽강여지 그 선생님들 진짜 얼굴도 까매가지고 정말...

삼삼개 농사짓다 막 올라온 듯 했어. 아마 그 선생님들은 그 때가 처음 수련회 참가했을 거야.

몽강여지 그 때 인천하고 구로는 회원 수가 많아서 자기들끼리 몇 팀을 나눴을 거야.

삼삼개 옛날에 인천하고 구로가 좀 날렸지.

민들레 다른 데는 한 줄로 서서 지부 소개하는데 우리는 몇 줄로 서서 인사하고...(흐뭇)

나비 근데 수련회나 총회에 가면 꼭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데가 봉천이었어.

몽강여지 어머, 그건 한 두 명이 그랬지. 우리 지역 다 그러지는 않았어. (다 그랬지 뭐)

올리브 증언이 왜 엇갈리는 거야?

삼삼개 밤새 얘기하는 건 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김 모양이라고.

나비 근데 내 눈에는 봉천이 매거지로 아침 식사에 안보였어.

몽강여지 사실을 고백하자면 김 모양은 아침에 못 일어났고, 이 모양은 아침을 원래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좀 더 잤지. 근데 박 모양은 정말 모범생이어서 꼬박꼬박 아침 챙겨먹었고. 근데 그 때 아침 안 먹은 사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있었어.

나비 아니, 근데 나는 이상하게 봉천은 항상 늦잠 자는 방이라는 인상이 머리에 박혀있어.(아니야—)

삼삼개 내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안 되는 사람이 김모양이었어. 그 때 그 사람이 우리 지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아침에 늦잠 자면서 꿈도 꿨대. 자기가 늦잠을 자서 장롱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찾으러 중앙 사무국에서 방 뒤지러 오는 꿈이었대. (일동 웃음)

몽강여지 근데 아침에 사무국에서 문 두드리면 너무 싫었어. 막 꽝꽝 두드리면서 그러는데 정애언니의 그 높은 음으로 "봉천! 일어나!" 그러는데 너무 미웠어. (인제 그 역할을 네가 하잖아?)

삼삼개 우리는 오해도 받았어. 숭실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 날 밤에 진짜 조심했었어. 일찍 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자자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조용히 잤는데 그 다음 날 난리 났잖아. 다들 우리보고 "너네 어제 새벽까지 노래 부르고 떠든 거 봉천 너네였지?" 이러는 거야. 황당하지.

민들레 그날 밤 그런 건 구로였을 거야. 그날 아는 노래란 노래는 다 불렀을 거야 새벽까지.

삼삼개 우리가 원래 그거였거든. 그 때 우리 지회장 김모양이 한 가수였거든. 일명 삼수봉이라고. 우리가 주로 밤새 노래 부르고 그랬었어. 근데 그 밤은 정말 조용했었어.

민들레 그래, 그러고 일어났더니 우리가 떠들었는데 봉천이 떠들었다고 다들 뭐라 그러네.

삼삼개 맞아, 우리 아니라고 그래도 아무도 우리 안 믿어주는 거야. 우린 그 날 정말 일찍 잤는데. (억울!)

몽강여지 근데 그 때 일부 몰지각한(? · ·) 중앙 사무국과 선배들은 밤에 떠들면 무조건 봉천인 줄 알았어. 잊지못할 — 그 여인?

삼삼개 그리고 또 신선했던 건 인천의 세쌍둥이의 남자보육교사였어. (이름이 뭐였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홍국인가? (김홍국은 가수고)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최홍국 선생님이셨습니다.)

나비 근데 옛날에는 이기원 선생님이 그렇게 예뻤다며?

몽강여지 음, 수원에서는 기원언니, 그리고 안산에서는 심선경 언니가 나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

삼삼개 그래도 지탁연의 미녀하면 이은애 선생님이지. 기원씨는 예뻐. 그렇지만 하고 다니는 게 털털해. 근데 이은애 선생님은 저런 사람도 지탁연에서 일하나 싶을 정도로 우아하다고 해야하나? 지탁연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몽강여지 그 때는 안산이 다들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는데 전북의 키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 수련회 하면 춤을 하나씩 갖고 와 아이들 동요에 맞춰서 가르쳐 준 선생님이 생각나.

민들레 말괄량이 삐삐 노래에 무용 가르쳐 준 선생님 아니야?

몽강여지 나는 생각나는 건 화랑관창 춤, 서은희 언니가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전에 그 선생님이 먼저 가르쳐 줬거든. 그리고 보육교사회 겨울 수련회에서 서은희 언니가 가르쳐줬어. (맞아, 맞아)

나비 전북 선생님들은 항상 율동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해 온 거 같아.

삼삼개 옛날에는 꼭 뭐 하나를 준비해 와야 돼. 사전에 지역M.T 왜 가는데, 거기 가서 발표 뭐 할까 고민했어. 필수품이야 뭐 하나 발표하는 게.

민들레 나는 미향씨 생각이 많이 나.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변미향 선생님?) 어, 처음 수련회 갔을 때 얘기하던 게 생각 많이 나고 똑 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

삼삼개 난 그 사람 생각나는데 대전 샘골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재미있게 노는 거, 요즘의 고정미의 역할이지? (그 선생님이 말괄량이 삐삐 가르쳐 줬었다.) 고정미 보다는 더 다이나믹한 선생님이었지 싶어.

나비 옛날에는 수련회 하면 몇 명이나 모였어?

민들레 많이 모일 때는 200명 정도 모였지? (최소 150명은 모였어)

삼삼개 그 때는 전원이 다 모이는 시절이었어. 안 오는 사람은 아마 출산이거나 그랬을 거야. (임신해서도 왔잖아) 전국의 지탁연 소속 탁아소들은 1월 2~4일, 8월 1~3일 방학하고 다들 수련회에 모였었어. 그게 우리의 방학이었지.

나비 훌륭한 조직이다.

삼삼개 '조직이 부르면 따르리'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건 정말 따라 배워야 돼)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때 그냥 수련회 빠지면 죄책감 그 이상의 기분이 들었었어.

나비 나는 고정미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난리를 치길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 그리고 전북에서 율동 가르쳐주면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지. 그 다음에 지부별로 돌아가면서 장기자랑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

삼삼개 그러고 보니 충청도 아래쪽이 재미있었던 거 같아, 충청도 위쪽은 좀 썰렁하고....

몽강여지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부산의 이원경 선생님.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선생님만 앞에 나오면 나는 그냥 자지러졌어,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말을 하고 꼬불꼬불한 파마머리에 호리호리한 몸매로 자기네 지부 소개할 때나 뭐 할 때 난 정말 너무 웃었어. (얘기 들으니까 얼굴 생각난다.) 옛날에 김향진 언니 하기 전에 부산 지대위(예전에는 지부장이 지역대표위원이었답니다.)하던 선생님이 있어. 나는 그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나비 나는 인천 선생님들 한꺼번에 나와서 인사할 때 저기는 물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쭉쭉빵빵-이런 속어를 써서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인천은 회원수가 많아서....) 95년도 인천의 신입회원들이 이경미부터 위준임 등등 키 크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랬어.

올리브 나는 조용란 선생님. 이름처럼 조용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봉천지역도 기억이 많이 나. 항상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에 노래 가르쳐 주고 그랬어. 김연숙 선생님이 나가서 새로운 노래 열심히 가르쳐 주고 그런 거 생각나.

삼삼개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는 지역 M.T가서 먼저 배우잖아.(구박을 얼마나 받았던지...) 그 사람이 음정, 박자 틀리는 꼴을 못 봐. (거기에 우리는 화음까지 넣어야 했잖아.) 다 보고싶다.

몽강여지 그럼, 이번 수련회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거나 보고싶은 얼굴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정리하지요.

나비 나는 역대 회장들 얼굴 다 보고싶다. (속 보인다.)

민들레 그럼, 나는 역대 상근자들 얼굴 다 보고 싶다.

나비 아니, 옛날 회장들이 워낙 전설 속의 인물들이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

몽강여지 나는 최현숙 선생님이 2대인 줄 알았어. 근데 지탁연 10주년 기념식 할 때 보니까 임해숙 선생님이 초대 회장인 거야, 그 다음이 장현자 선생님이고, 그 다음이 김경태, 그리고 최현숙 샘이더라구.

나비 그럼 이번에는 다 연락해서 꼭 다들 오시라고 해야겠다.

삼삼개 나는 이번에는 재미있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 그동안 전체적인 결속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부들끼리는 친한데 이번에는 지부끼리 앉고 이런 것을 탈피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현숙 언니! 꼭 보고싶어요.

올리브 어떤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보다는 기대가 되는 게 지부별 장기자랑이 기대가 돼. 여태까지 구로도 그렇고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지부보다는 아니더라구,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도 신경 써서 잘 해봤으면 좋겠어.

민들레 아, 나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

몽강여지 이번에는 많이 올 거야, 아이들도 같이 오니까. 더 북적북적 할거야.

참으로 짧은 추억담이었지만 얘기하는 내내 우리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고 박장대소가 연신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즐거운 추억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8월말이면 변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추억 속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들이 만나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두고 두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실 거죠?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역할을!' 이라는 취지 아래 1인 1자원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자원봉사 내용중에 원하는 것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02-2275-8505, 메일 daycare@jinbo.net, 회원목소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24일

접수도우미
수련회장 꾸미기 도우미
환영인사와 노래하기 도우미
편지 수거 도우미
걸개그림 밑그림 도우미(아이들이 그릴 걸개그림의 밑 그림을 그려 주실 분)
공동체 놀이 진행자
길놀이 풍물꾼
말뚝이(추적놀이의 각 지점별로 2인씩)
불피움이 도우미 (평소 모닥불을 잘 피웠던 사람,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연기에 강한 사람)

- 25일

'꼴든벨을 울려라' 진행자
꼴든벨 모래찜을 위한 삽질 도우미(달락한 사람들 모래찜질을 위해 모래를 퍼주는 사람)
꼴든벨 진행 도우미(종이 나눠주기, 꼴든벨 태두리 긋기 등)
상품 만들고 전달하는 도우미
이름표 뒤에 스티커 붙이는 도우미
편지함 들고 편지 뽑게 하는 도우미

특집 1

편안한 만남, 따뜻한 사람들…

임미화 · 경기,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두 달에 한번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느끼는 시간 경기지부 모임!

솔직히 보육교사라면 다른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지 않은가? (에고‥ 나만 그런가?)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나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담과 생활이야기,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 등은 하나하나 정말 값진 보물이다.

지난 4월 진달래 농장에서의 모임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다..

(6월 진달래농장II모임은 알미운 라마순 태풍과 장마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되어 흑흑TT;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모임이 있는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정말이지 너무나 좋았다.(애인이 있다면 같이 피크닉을 가고 싶은...)

도착하니 농장의 터주대감(?)거리와 그의 똘만이들이 제일 먼저 반긴다.(농장의 멍멍이들..) 몇분 선생님들이 먼저 도착하시어 점심식사 준비에 한창이다. "고기를 이만큼 샀는데 모자라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누구선생님은 왜이리 늦는 것이여…~" 아줌마(?)들의 끊임없는 수다에 아직 아줌마(사람들은 내가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하지만...)대열에 끼지 않은 나는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눈과 귀를 이리저리 굴리며 경청을 하는데 듣고만 있어도 정말 재미있다.

장작불은 피우고 그 위에 육직한 돌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삼겹살을 놓았다.(지금 생각해도 음~ 정말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것이..) 잘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고 삼겹살 확궁(?) 시원한 맥주와....

점심을 잘먹고는 씨감자를 가지고 감자를 심으러 가는 길.. 쪼그리고 앉아 수다를 떨며 감자 심는 모습이 "감자밭 메는♬아낙네야~♪"

우리 선생님들 감자를 심으시며 다음에 와서 꼭 감자를 캐가자고 서로들 약속을 한다. "진달래농장 농장장님, 2,000원씩 꼭 받으세요~히히‥" 내가 요즘 그 감자를 먹어봤는데 곽신곽신 정말 맛있다.

다음 모임 때 감자 캐서 장작불 피워놓고 감자 구워 먹어요~
경기지부 이모저모 감자 캐서 구워먹은 이야기 2탄을 기대해 주세요!!

잘먹고 열심히 일(?)하고 뒷동산 배나무과수원이 있는 곳에서 나눈 그 동안 사는 이야기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회 샘들, 두서가 없는 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어서리...
초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복 더위 잘 피하시구요, 건강들 조심하세요!!

특집 1

대구의 애기들 구경하러 오세요

홍미숙 · 대구지부장

☼ **근오** 작년 12월생. 아들.
아빠를 닮아 시원시원 잘~ 생겼지요. 지리산에서 맑은 공기, 맑은 햇빛에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 **준똥이** 1월생. 아들.
출생시 4.1kg, 55㎝. 누구라도 한번만 이름을 들으면 다 외워 버리지요.

☼ **은채** 3월생. 아들.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길고 까맸어요. 대열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괜찮다네요.

☼ **진웅이** 5월생. 아들.
외할아버지를 닮아 쌍꺼풀이 없대요. 엄마, 아빠 모두 있는데두요. 정혜정 선생님이 조심조심 키우고 있으시죠.

☼ **승이** 6월생. 아들.
황달이 심해 고생했어요. 아기도 엄마도. 앞으로는 엄마, 아빠 닮아 든든하게 클 거예요.

웬 아들들이냐구요 -
회원들이 최근7개월만에 새로 득남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회원 5명이 새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5명 선생님들이 애기 키우느라 정신없구요.

나머지 처녀 선생님들은 선물해 주느라 정신없었구요.

디딤 어린이집, 한사랑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의 출산휴가로 또 정신이 없었구요.

이래저래 큰 사업은 없었지만 대구보육교사회 선생님들은 모두 바쁜 2002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해야할 일은 꼭 해내고 있습니다.

매주 두 번 있는 장애통합수업, 디딤 아이들 중 큰 아이들은 많아 나가고 새로운 5살들이 참가해 연초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한사랑 어린이집에 가서는 통합수업에는 관심 없고 울거나 도망다니면서 놀거나. 지금은 디딤은 내 집처럼, 한사랑을 내 집처럼 신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통합야외수업. 달성공원, 정글인, 인형극관람, 우포늪으로 GO GO!

그리고 5월에 어린이날 행사까지..

아직도 좀 어수선한 대구보육교사회.

아들들 키우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복직하면 이제 제자리를 잡고 좀더 재미난 보육교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들, 대구에 언제한번 애기 구경하러 오세요.

특집 1

지침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박화명 · 광주전남, 회원

광! 광주전남지부랍니다
주! 주로 20대후반부터 30대중반들이 많구요
진!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술자릴 좋아해요
남! 남들 앞에선 부끄럼도 타지만
지! 지침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쳤답니다
부! 부럽죠…

먼저 한국보육교사회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회원여러분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전 다시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지부가 결성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동안 처음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회와 함께 해온 선배들이 있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까지… 그들 '사람들' 이 있다는 것이 우리 지부의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부는 예전에 많이 했던 말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보육교사회'라는 말이 정말 살아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끈을 놓기가 쉽지 않는, 사람냄새가 많은 지부입니다. 때론 그 답답함과 질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서는 든든한 백(?)이 된답니다.

사프한 감은 멀어지지만 늘 성실한 사무국 식구들과 좀 게으른 것 같긴 하지만 정 많은 선배들, 말은 좀 많고 술고래이긴 하지만 귀엽고 능력 많은 후배들이 어우러져 한 20여명정도 모여 살고 있어요. 광주와 목포에서요. 또 아직까지도 우리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어린이집도 광주의 도담도담과 목포의 새꿈 이렇게 2곳이 있답니다

주제별 교육강좌나 시기별 연수, 자치단체 보육정책사업 관여,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교사교류, 한,일 보육연수 등 이 지역에서 올바른 보육활동의 길잡이가 되고 보육교사들의 친구가 되고자 많은 활동들을 하곤 있지만 더 많은 보육교사들과 같이하기엔 우리 힘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래도 올핸, 교사들과 이멜을 통한 정보와 맘을 나누는 활동이나 처음으로 해 본 영아교사교육, 작은 모임활동 등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욕심만큼 커다란 사업들은 아니어도 함께 하는 회원들에겐 격려와 보람을 같이 느끼는 지부가 되려 합니다.

좋을 때에 함께 하고 잘하긴 쉬워도, 힘들 때 함께 뭉치고 잘해나가긴 어려운 법이지요…

광주전남지부는 바로 그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답니다. 더디고 힘든 길이지만 모두의 정열과 힘으로 인해 한발짝씩 나아가는 우리의 길… 힘내자구요!!!

특집 1

한번 조직은 영원한 조직이다.



안미경 · 부산, 조직부장

어렵게 임신을 한지라 지난해 늦가을부터 올 봄까지 거의 7.8개월을 휴직 아닌 휴직을 하고 있다. 부산과 동떨어진 양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활동을 하기에 힘이 들어 조직부를 맡고 있음에도 거의 활동을 접어야 했다. 7.8개월의 활동을 접는 동안 기동성 있게 조직부 일을 맡아서 잘 이끌어 준 참새(김정애), 딸기(한혜정) 언니께 참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듯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 하나에서부터 우리 지부의 자랑이 시작된다. 회원들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서도 아니요, 어린이집이란 현장을 내 팽개치고 지부 일만 볼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어서도 아니다. 함께 활동하는 회원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씀씀이가 이렇게 금새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더없이 고맙게 느껴진다. 잔잔한 정이 많이 느껴지는 지부이기에…

내가 쉬고 있는 올 상반기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낸 것 같다. 먼저 동래, 진구, 사상이란 3개의 지회에서 금정 지회가 새로이 발족을 하여 4개의 지회로 급성장하여 앞으로의 조직적 발전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 물론 회원들의 수가 곽 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사업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사고 아래 새로운 지회가 건설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올 한해 새로이 들어온 신입회원들을 보면 노장들이 참으로 많다. 늙으마이(?) 보육공부 시작해 좀더 나은 보육내용과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부산지부의 문을 두드린 늦학이 신입회원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우리 부산지부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을 위해 만들어 낸 사무국을 포함하여 특별사업(프로젝트사업)까지 시도해 내면서 올 상반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과 연계한 생태, 환경실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매달 새로운 내용으로 회원들의 마음과 머리를 채워주는 교사재교육, 각 지회 모임 등 쉴 새 없는 활발한 활동들이 부산지부 회원들을 바쁘게 하지만 모두들 힘든 기색이 없다.

많은 행사 중 5월15일에 있었던 스승의 날 행사는 매우 즐거운 자축행사였었다. 보육교사인 아내를 가장 잘 내조한 남편들에게 주는 내조상을 비롯하여 각종 부적들을 만들어 몸과 마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에 심적으로나마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주도록 한 기발하고도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회원들을 더더욱 즐겁게 했던 행사가 아니었나싶다.

힘난하고도 힘난한 보육교사의 길을 따뜻한 동료애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는 부산지부, 이것이 우리 조직을 배신할 수 없는 커다란 이유인 것이다.

특집 1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곳



김미나 · 서울, 조직부장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다. 스승의 날 자축연으로 행복한 어린이집에서 지부 회원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놀던 일이 있었다. 푸짐한 저녁을 먹으며 강제(?)로 개인기를 내보여야할, 디너쇼(?)가 벌어졌다. 쪽지를 뽑아 적혀있는 개인기 지시사항을, 되던 안되던 수행해야하는 것이었다. 기나 긴 문장을 요즘식 정통 랩으로 소화해야하는 불운한 쪽지를 뽑은 나는 암담했다. 하라면 하겠지만 되지도 않는 어색한 무대매너로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이 뻔했기에 앞으로 펼쳐질 썰렁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눈앞에 쌓인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조용하던 장내가 사람들의 환호로 들뜨기 시작했다. 되지도 않는 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환호하며 박자를 맞추어 주는 것이었다. 그 열렬한 동참과 응원에 쑥스러움도 잊고, 막판에는 혼자 신이나 '오-예-' 까지 외치며 쇼를 펼쳤다. 끝나고 무지 쑥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흥겨움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 날의 일이 내가 최근에 받은 가장 유쾌한 기억이다.

서울지부 자랑 좀 늘어놓아 보라는 청을 받고 처음 먼저 떠오른 것이 그날의 기억인 걸 보면 정말 나에게는 인상적인 날 이었나보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매력이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할 때 모두 힘을 모아 응원한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배려하고, 격려한다. 망설임이 많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발칙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된다.

처음 서울지부를 찾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지부를 'cool'하다고 한다.(육인지- 칭찬인지 - · ·) 솔직히 내가 처음 서울지부를 찾았을 때 처음 느낌이 정말 'cool'했다. 다른 모임에서처럼 처음 맞는 사람에게 요란한 환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긋나긋한 챙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버된 친숙함에서 오는 피곤함도 없었다.

혼하게 경험했던 과장된 친밀함이 없어 오히려 어색했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서로를 알아가며 지부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챙김에 빠져들게 되었다. 부족한 것이 많음이 뻔히 보일 텐데도 묵묵히 믿어주고, 요란하지 않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진실함에 감동하게 되었다.

이것이 처음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지부에서 스스로를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서울지부에는 유난히 장기근속(?) 회원들이 많다. 시간이 좀 걸리고, 깨치하기 쉽진 않지만 서서히 빠져드는 사람냄새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짧은 경험으로 보면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음을 안다. 지부자랑을 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이런 서울지부 사람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이해집단이면서도 가증스럽게도 사람중심을 외치는 곳들이 판치는 곳이 참 많은 요즘, 손익계산을 하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배려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서로에 대한 경계의 또 다른 표현으로 다가오는 요즘 같은 때 정말 사람냄새가 그리워진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무뚝뚝한 서울지부 사람들이 더 그리워진다.

다른 지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왠 자랑이냐며 따질지도 모르겠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서울지부뿐 아니라 다른 지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력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담은' 지부들의 분위기가 모여 우리 보육교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음- 정말 그렇군! 맞아 맞아... (새삼스런 깨달음....) 지부와 교사회의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는 요즘 빠지지 않는 단골 얘기거리로 '사람냄새'가 거론되는 걸 보면 우리 교사회의의 정말 중요한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글을 쓰다보니 은연중에 알면서도 무심히 넘어갔던 우리 지부의 매력을 찾는 재미가 쏠쏠해진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의 향기'를 지부 안에서 찾아보게 된다.

그 동안 정말 소중히 해야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거칠어질 때가 많았다. 책임지지 못할 비관도 많이 뱉어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서로를 믿어주고 이끌어준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오래오래 서로 보듬으며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속삭이고 싶다...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외부방에 보육교사토론방이 개설되었습니다.
보육주제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특집 1

나는 이런 여자가 좋다!

나는 그런 여자가 있는 인천지부가 좋다!

고정미 · 인천, 조직부장



그녀는 뜨겁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
그녀의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리하여 따라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그것이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적은 결코 없었으며,
이기적이라던가 자기중심적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들어보질 못했다.
자신에 대한 삶의 열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정말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한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팡구는 그녀의 모습은 참 순수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모든 이를 눈부시게 한다.
또한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자만하지 않으며, 모르는 것에 실망하지 않으며,
또한 모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려하지 않으며 솔직히 드러내며,
천천히 하나씩 둘씩 배우려 한다.

그런 그녀가 어찌 예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
그녀를 알고 있는 우리 또한 더불어 행복하다.

보잘 것 없는 것도 크게 만들며,
버려진 쓰레기도 예쁘게 꾸며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다.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잔잔한 미소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보다 나이가 한참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는 친구를 갖고 있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항상 물리치지 않으며 한껏 보듬어 안으며 시간을 함께 한다.

그녀는 분명 사람이다.
그녀는 분명 우리 인천지부에 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인천지부 파이팅! 한국보육교사회 파이팅!

특집 1

나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김원희 · 인천, 예슬어린이집

나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나의 텃밭에 간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에는 나를 반기는 상추와 고추와 방울토마토, 호박, 아욱, 쑥갓이라는 아이들이 있다. 얼마나 잘 크는지 자식만큼이나 이쁘다. 우리 텃밭 이름표에는 '혜리, 지윤, 예슬, 가형, 현호, 여진이네'라고 쓰여 있다. 인천 보육교사 회원 4가족이 조그만 텃밭을 같이 가꾸고 있다. 지난주에는 토마토가 익어서 아이들이 몇 개씩 따먹기도 했고, 가지와 호박이 먹을 만큼 자라서 같이 텃밭을 가꾸는 선배 교사들과 나누었다. 나는 이제 한국 보육교사회 2년째이지만, 그 분들은 10년을 바라보거나 이미 넘긴 大선배님들이다.

지난 일년동안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항상 손님인 것만 같이 겉도는 어색함이 쉽게 달라지지 않았었다. 오월 신입회원 교육을 받으면서 중앙 식구들과, 텃밭을 같이 가꾸면서 인천 식구들과 그러한 어색함이 안개 거치듯 서서히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회를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조금은 보이는 듯 하다.

나는 사람과 사람의 잔잔한 인정을 좋아한다.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잔가지를 올리고, 그 위에 장작개비를 올려 아랫목을 데우던 시골집 아궁이가 생각난다. 서서히 따뜻해지다가 그 따듯함이 오래가는 시골집 아랫목처럼 난 그런 인정을 좋아한다.

올 여름은 다른 어떤 해보다 바쁠 듯 싶다. 8월 달력을 보면서 **빽빽**이 짜여지는 일정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작년 2001년에는 보육교사 여름 수련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기대되는 일정 중에 하나이다. 들리는 소문에 '변산 해수욕장'으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볼만하다.

나는 비록 신입회원이지만 30대를 넘긴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래서 다들 겪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도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어느 만큼의 포기되어지는 부분들이 항상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인지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따라가게 된다. 올 '여름 수련회'의 취지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난 그러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어쩌면 갈팡질팡하는 신입회원 여러분 ! 꼭 참석하셔서 마음을 스스로 달래보는 기회로 갖게 되길 바란다. 한국보육교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변산 식당에 밥 많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 - 편집부)

특집 2

이런 휴가 어때요

무딘 머리를 깨는 휴가

정리 · 편집부

휴가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휴가(休暇) -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한 기간 쉬는 일. 또는, 그 겨를. 방가(放暇). / 산 · 바다 · 계곡의 휴양지나 보양지에서 피서 · 피한 하는 것 또는 기간. 이라고 나와 있다.

말하자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하겠다. 보육교사들이 평소에 해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딘 머리를 깨는 휴가.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 집으로 오면 파김치가 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 지하철 출퇴근이라면 신문이라도 한 줄 읽겠지만 그것도 쏟아지는 아침잠으로 어쩌다 한번 일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새로운 유행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남은 것은 무디어진 머리뿐이다. 모처럼의 휴가에는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다양한 문화적 충격으로 무딘 머리를 시원하게 깨보자.

첫째 날

일단 오전은 그냥 잔다. 무딘 머리에 새로운 충격을 주기 전에 충격을 견딜만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보육교사의 주 대화 상대는 영유아들이다. 아이들과의 생활로 보육교사의 하루 사용어휘의 종류가 500단어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단어와 말로 나의 언어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 그렇다고 휴가 기간 내내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안심!

그러려면 맨 먼저 언어가 풍부한 곳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며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 삶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과 몸짓이 있는 곳, 모처럼 연극 한편을 보는 것은 어떨까 ?

1. 아이들에게 보여주러 갔다가 어른이 울고 나온다는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일시 | 2002년 7월 2일~9월1일
(월요일은 쉼/평일 7시30분/토요일 4시, 7시30분/일요일 3시, 6시)

장소 | 유시어터
티켓가격 | 어린이,중고생 10,000원 / 대학생,일반 15,000원
예매 |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k.co.kr)
티켓파크(1588-1555 www.ticketpark.com)
문의 | 3444-0651~4 / 홈페이지 www.youtheater.co.kr
지방공연일정 | 7월 6,7일 부천 부천시민회관
7월 12,13일(금,토) 대전 엑스포아트홀
7월 20,21일 광주 광주문예회관
7월 22,23일 아시테지 유시어터
7월 27,28일 과천 과천시민회관
8월 3,4일 전주 전주학생예술회관
8월 10,11일 인천 인천서구문화회관
8월 17,18일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8월 24,25일 군포 군포시민회관
8월31일, 9월1일 울산 KBS울산홀

2. 열린 공간의 신명

마당극 〈백두거인〉

15년간 마당극만을 해온 마당극 전문극단 〈극단 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온 〈교육연극 배움터 해마루〉가 함께 만든 가족 마당극. 전래놀이와 국악동요, 전통무예, 춤 등이 어우러진 「백두거인」

「백두거인」은 '백두산' 설화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를 기본 모티브로, 우리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과 '나누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극이다. 평화와 공동체적인 삶의 기원을 담고 있다.

일시 | 2002년 6월 26일 - 8월 4일 (평일 2:30/4:30 토일휴일 12:00/2:00)
장소 | 대학로 극장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이화동 로타리 방향)
백두거인 홈페이지 | http://baekdu.k21.net/
※ 잠물생활사박물관과의 제휴로 백두거인 공연을 보면 잠물생활사박물관 관람/ 체험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연기간동안 평일 오후 12시,2시 그리고 토,일,공휴일에는 2시, 4시에 상설 체험 강좌를 연다.

2. 뮤지컬로 보는 시민의 힘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19세기 초 프랑스 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중들의 삶, 선과 악, 법과 정의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장중한 음악과 대규모의 군중신 등을 통해 표현한 뮤지컬로 이번 한국 공연에는 브로드웨이 출연진이 직접 공연을 한다.

일시 | 2002년 7월 12일 - 8월 4일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 02-518-7343 / www.lesmis.co.kr)

둘째 날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깊고 은밀한 부분을 모두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사람의 속(·)을 환히 알 수 있는 전시회가 있다. 2002년 4월 17일부터 2003년 3월 2일까지, 11개월 동안 휴관일 없이 개최되는 '인체의 신비-한국 순회展'이 그것이다. 이 전시회는 인간의 몸을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정밀하게 표본으로 만들어 관찰하도록 한 전시회이다. 인체의 신비를 벗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해부학에 기반을 둔 프라스티네이션 기술로 발전하여 인체를 정교한 표본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갔다. 평소에는 피부로 덮여있어 볼 수 없었던 근육, 혈관, 뼈의 모양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엽기에 약한 분들은 관람을 삼가 해야 될 듯. 사람의 속사정보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연사박물관을 권하고 싶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식물, 동물, 곤충이 있는지 알게 되면 새삼 나의 눈이 얼마나 좁은 울타리에서 맴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연표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만나는 제주도자연사 박물관을 함께 소개한다. 능력 되는대로 찾아가 보시길 바란다.

1. 인체의 신비(BODY WORLDS) - 한국 순회展

장소 | 국립 서울 과학관 특별 전시장
기간 | 2002년 4월 17일~2003년 3월 2일(휴관일 없음)
관람 시간 | 오전 10시~오후 9시 (마지막 입장 오후 8시)
관람료 | 성 인 10,000원, 중고생 6,000원, 초등생 5,000원, 신용카드 이용 가능(문화상품권 안됨)
문의처 전화 | (02) 741-3913
홈페이지 | http://www.bodyworlds.c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면 입장료, 카달로그 등 할인혜택)

2. 이대자연사 박물관

관람 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 일요일, 공휴일 휴관(1,2,7,8월 방학기간 중 토요일 휴관)
입장료 | 무료 (단체관람 사전문의 후 관람일 1주일 전까지 공문접수)
문의 | (02)3277-3155
위치 |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조형예술대학관 옆. 지하철 2호선 이대 입구에서 하차.

3.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적 자료를 조사 연구,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1984년 개관하였다. 전시실에는 제주인 일생의 통과의례를 비롯해서 의 · 식 · 주와 생산 산업의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하는 한편 제주도의 형성과정, 지질암석, 해양식물, 동물, 식물의 자료들을 생태학적으로 전시하여 제주의 자연과 인문문화를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람 시간 | 하절기(3월~10월) : 8:30~18:30, 동절기(11월~2월) : 8:30~17:30
관람료 | 어른 1,470원 / 청소년(19세이하) 700원
문의 | 064)722-1588 · 2465, 753-8771 · 8772
영화상영 | 제주도 환상의 섬, 신비의 샘(매일 4회-9:30, 10:30, 15:00, 16:00)

셋째 날

무딘 머리를 깨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평소에 쉽게 읽지 못했던 책으로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것도 좋겠다. 오노 사태(?)와 미군전투기 구입(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압력, 그리고 최근의 미군 탱크사고로 사망한 여중생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실체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언론이나 정치집단의 선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책을 통해 파헤쳐 보자. 소중한 휴가를 일상에 매몰되어 잊고 있었던 것을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보자.

신문을 보다보면 하루에 최소한 하나씩은 지금 미국이 세계를 향해 어떤 테러를 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폭격을 퍼붓고 있는 미국은 얼마 전에는(2002년 7월 1일 새벽) 결혼잔치 중이던 마을에 폭탄 오발로 5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자국군인(미군)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며 유엔 보스니아 평화유지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말하자면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라에는 가차없이 보복을 하지만 자기나라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군 관련 범죄 또한 미국의 이러한 오만함으로 당한 사람만 억울한 뿐 문책도, 보상도, 사과도, 없다.

미국국민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나라나 국민 모두가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을 아닐 테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국민 중 최소한 한 명은 있지 않을까? 교육과 언론, 정치선전과 정보 통제를 통해 눈을 가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찾아낸다면,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노암 촘스키(MIT 언어철학부 교수)는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라는 책을 통해 미국이 자국민에게 숨겨온 많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미국인만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탄하면서 오랫동안 무역봉쇄를 실시해왔다. 미국은 무역봉쇄가 자유주의의 수호, 쿠바국민의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선전해 왔지만 실상은 봉쇄 당한 무역품의 90%가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물품 이었으며, 이런 물품의 부족으로 많은 쿠바의 어린이들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고생한다는 사실에서 인권보호와 인도주의라는 구호가 단지 정치선전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촘스키의 날카롭고 타협하지 않는 글을 읽으면서 이론(교육을 통해 배웠던 보편적 가치)과 현실(군사력과 기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정치)사이의 괴리를 찾아내고 진실을 이야기 할 통찰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되묻게 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적어도 무엇이 정의인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감춰진 역사적 진실이 궁금한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노암 촘스키 / 2001년 2월 초판 발행 / 아침이슬 / 8,500원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지도

—이웃사랑 어린이집의 활동 사례—

정미란 · 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교사

이래의 글은 지난 2001년 10월 20일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시설장 연수'에서 강의한 원고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놀이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1. 짝활동
2. 협동학습
3. 역통합
Ⅲ. 통합활동에 대한 고려사항
1.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 선정
2. 아동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
3.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제
4. 활동이 잘 되고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Ⅳ. 통합보육을 통해 얻은 성과(교사)
1. 아동에 대한 이해
2. 교사 협력
Ⅴ. 끝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어린이집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러오면 대부분 "오늘 우리 아이 어땠어요?"라고 묻습니다. 그 아이가 별 탈없이 지냈다면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잘 놀았어요."라고.

아동의 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말, 그리고 교사가 아동을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놀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어떨까요? 장애아동의 놀이가 왜 걱정거리가 되는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집에서 부모와는 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친구랑 얘기를 잘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 다른 아이들을 마구 때려요. 그거 말리다가 내가 지쳐서 데리고 들어와 버리죠."

"또래가 옆에 있어도 그 아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 혼자서 책장만 찢고 있어요."

"저 혼자 장난감을 다 가지려고 해요. 친구가 건드리면 소리지르고 친구를 밀어버리니 다른 아이들이 같이 안 놀려고 해요."

장애아동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경우라도 또래와의 놀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친구와 노는 것은 가르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에 거는 가장 중요한 기대이자 요구는 바로 "친구와 잘 노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 저절로 친구들과 잘 놀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일반아동은 알아서 장애아동과 친하게 잘 놀까요?

통합보육을 잠시라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애-일반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보더라도 장애아동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그를 위해서는 성인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Peck & Cooke, 1983 ; 박승희, 1994 재인용)

그런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상호작용은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아동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고 장애또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Esposito, & Peach, 1983 ; 하승연, 김광웅, 1996, 재인용)

통합환경에서 교사는 한편으로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잘 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수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는 교육환경의 여건이나 교사의 담구정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제 사례의 하나로 현재 이웃사랑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II. 놀이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1. 짝 활동

(1) 활동 방식

일주일 단위로 통합아동에게 짝을 정해주고 놀이나 반의 주요 활동 중에 짝이 함께 활동하도록 합니다. 짝은 스스로 원하거나 교사가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짝 활동을 한 후에는 짝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고, 적절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2) 실제 활동

① 등원하면 짝에게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스스로 친구에게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짝에게는 꼭 인사를 하게 하여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익히게 합니다.

② 자유선택활동, 영역별 활동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짝과 상의하여 함께 놀고 싶은 영역에 가고, 2-3명의 친구가 더 모여서 놀 수 있도록 교사가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교사의 적절한 중재-동화책 같이 보기, 쌓기놀이, 역할놀이 등의 활동 유도하기-가 필요하고 놀이가 진행되면 교사는 자연스럽게 놀이에서 빠집니다.

③ 대집단 활동
이야기나누기 시간이 되면 짝과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합니다. 전체가 함께 노래나 율동을 한 후에 짝과 함께 나와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④ 식사시간
점심시간에는 짝과 손잡고 줄을 서서 차례대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숟가락, 포크를 쟁겨서 식판을 받은 후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짝이 도와줍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식판 정리를 돕기도 하고 함께 교실로 돌아옵니다.

⑤ 바깥놀이 특별활동, 견학 등
교실 이외의 활동을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 짝과 함께 이동하게 합니다. 특별활동이나 바깥놀이, 견학 때도 짝과 함께 활동하여 단체활동에 잘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3) 아동 평가

◑ 민수는 짝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짝과 함께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자신에게 신경 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뿌듯한가보다. 평소 말을 잘 하지 않고 혼자 놀기를 즐겼는데 짝이 말을 걸면 좋아하고 이야기도 한다. 얼굴표정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와도 놀려고 한다.

◑ 승열이는 짝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승열이는 친구들과 놀 때 적절하게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짝 활동을 통해서 타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일반 아동은 장소를 이동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짝이 된 통합아동을 도와주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듯 보인다. 짝 활동을 교사가 보상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짝과 밀착되어 지내면서 빨리 친해진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민수가 교실로 들어오자 꼭 껴안아주며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

2. 협동 학습

(1)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란

일반아동 2-4명과 통합아동 1-2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집단이 공동으로 하나의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협동학습이란 기존의 경쟁적인 학습이나 개별적인 학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향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습해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협동학습은 특히 학생집단이 이질적일 때 효과적이며 학습 뿐 아니라 아동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유용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의 충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서로 싸우거나 한 명에게 일을 전부 맡기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한마디도 못하고 소외되는 불균형적인 참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소현, 박은혜, 1998)

(2) 활동방식

자유놀이 시간에 교실내의 한 영역에서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활동 중에는 반 전체가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사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전에 협동이 왜 중요한지, 혼자 노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기술을 먼저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기술로는 도움 요청하기, 다른 사람 돕기, 자료 나누어 쓰기, 차례 기다리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 질문하기, 답하기, 친구 칭찬하기를 들 수 있습니다.

① 활동소개 - 진행될 활동을 교사가 설명하고 활동 방법을 정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

니다. 각 아동에게 적절한 역할을 나눕니다.

② 활동진행 - 아동들 스스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활동하게 지켜보면서 통합아동의 참여가 떨어지는 경우 교사가 옆에서 약간씩 보조해 줍니다.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주의사항을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활동 규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③ 마무리 - 활동이 끝나면 잘 협동하였는지 평가합니다. 모두가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자신이 해야 할 활동을 잘 알고 수행했는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었는지, 서로 협동했는지,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집단구성원 모두를 칭찬합니다. 스티커나 사탕 등의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3) 활동내용

몸을 그려보세요 / 손바닥 나무 만들기 / 협동탑 쌓기
하나씩 더해지는 그림(공룡 나라 그리기)
게임활동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 역할놀이 (미용실 놀이)

(4) 아동평가

◑ 경아는 평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도망치거나 소리질렀었는데 미용실 놀이를 할 때 "경아야, 예쁘게 해 줘." 하고 친구가 요구하자 아이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에 놀랐다. 역할을 바꾸어 경아가 손님이 되었을 때도 머리를 풀고 앉아서 오랜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 뒤로 경아는 친구들 머리에 관심이 많아졌고 아침에 오면 친구들 머리를 한번 만지고 (특히 머리핀) "머리 멋해!" 라고 말한다.

◑ 병수는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가면서 4명이 1조가 되어 신문지 위에 올라가는 게임을 했다. 병수가 많이 아파서 소심해져 있었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재형이가 병수를 업고 종이 위에 올라가 병수네 조가 이길 수 있었다. 그 뒤로 병수가 자신감이 생겼고 친구들에게도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 일반아동 중 손바닥 나무 만들기 할 때 평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다고 느껴지던 3명의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나무 밑둥을 찢어 붙이게 하였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손바닥 잎사귀를 만들고 있는 동안 나무 밑둥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과 우월감을 느꼈는지 너무나 열심히 만들었다. 평소에 혼자서 과제 수행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자신없어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주 게 한 것이 자신감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성과

여러 명이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아동이 옆 친구의 행동을 많이 모방하게 되고, 상대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친근하게 대해주는 경우에 통합아동이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묻고 활동을 빨리 익혀나갑니다.

- 협동학습이 어린이집에 통합된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한 연구에 따르면 협동학습 중재를 통하여 5, 6, 7세 반에 통합된 장애유아 3명 모두에게서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중재 이후 두 명의 아동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의 놀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던 아동이 또래아동이 권유하는 놀이에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에서 협동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 명의 아동은 의사소통 행동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동은 이야기할 때 허공을 보며 작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여 어떤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놀이상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자주 하였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재 이후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류은미, 2000)

◆ 이상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통합아동의 집에 친구들이 방문하거나 통합아동이 다른 친구집에 방문하는 활동도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빨리 친해지도록 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3. 역통합

장애아동 만으로 구성된 반이 있는 경우에는 역통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발달의 정도가 완전통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들로 구성된 장애아동반이 있습니다(무지개반). 이 반의 아동들은 무지개반과 일반교실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역통합이란

무지개반의 아동들이 일반아동반에 가지 않고 거꾸로 일반아동반의 아동 몇 명이 무지개반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아동을 위하여 소규모로 통합활동을 하여 빠른 시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귈 수 있도록 돕고 교사가 놀이기술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2) 활동 내용

① 두 명씩 짝지어 활동하기
- 퍼즐이나 교구를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
- 상대에게 과자 먹여주기 / 과자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 둘이서 나누어 먹기
- 보자기 양끝을 잡고 반환점 돌아오기 / 둘이 손잡고 걸어가서 사탕 먹기
- 둘이서 줄넘기(고무줄 놀이)

② 팀으로 활동하기(3-4명)
- 함께 블록으로 집 만들기 / 동물 블록으로 동물원 놀이 / 소꿉놀이
- 차례대로 고리끼우기 / 협동탑 쌓기
- 모자이크

③ 더 큰 규모의 집단활동(6-8명)
- 동물소리 흉내내고 이름 맞추기
- 우레탄 퍼즐판 완성하기, 퍼즐판 위에 올라앉아 손잡고 노래부르기
- 기차놀이
- 홀라후프 안에 모두 들어가기

(3) 활동 방식

역통합은 활동 공간이 일반아동반이 아니라 장애아반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에게는 특별한 공간에 초대받아 놀이를 한다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초대한 아동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즐겁게 놉니다. 대부분 간단한 놀이를 진행하지만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 하면 규칙이나 방식에 맞게 노는 것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가 이름을 부르거나 한 명이 일어나면 이름 알아 맞추기를 하여 이름을 상기시키고 활동을 설명하여 교사의 지도로 활동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친구들이 잘 놀았음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 아동 평가

◑ 지수는 한자리에 모일 때는 거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짝지어 활동하는 경우에 자기 차례가 되어 이름을 불러주면 와서 잠시 참여하고 또 돌아다니고…를 반복했다.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모임을 주시하고 있다. 과자샌드를 만드는 시간에는 "나 혼자 할꺼야" 라고 한다. 혼자는 참여할 수 없고 짝과 둘이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자 교사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다.

◑ 하늘이는 마음에 드는 놀잇감이 있으면 독점하려 하거나 친구가 사용중인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가 나누어서 사용하게 하면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줄었고 친구들과 함께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는 데 점차 적응하고 있다.

◑ 일반아동들 역시 아직 어리므로 초기에는 다툼이 일어났다. 주로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못견뎌 하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는 일반아동 역시 교사가 일일이 도와주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스스로 알아서 하게되고 활동이 안정되었다. 이제는 무지개반 친구에게 놀이를 제안하거나 차례를 일러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5) 성과

역통합은 일반아동이 장애아동 교실에 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서로 다른 반으로 구성된 경우에 일반아동반에 장애아동이 들어가면 "너네반에 가!"라고 하거나 교사에게 "쟤네들 왜 왔어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반 아니라도 올 수 있어. 같이 놀려고 온 거야."라고 설명하겠지만 서로 반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아이들은 그러한 교류를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교실에 가면 어서 오라고 반깁니다. 어떤 아동은 특정한 장애아동을 예뻐하기도 하고, 가방이나 모자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역통합의 성과라기 보다는 한 학기 동안의 모든 통합활동의 성과일 것입니다.

III. 통합활동에 대한 고려사항

1.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 선정

짝활동이나 협동학습, 역통합을 실시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우호적인 아동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장애아동을 거부하거나 활동 중에 너무 소극적인 아동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활동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역통합이나 협동학습의 경우에 처음 3-4회 정도 동일한 아동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통합 활동은 일반아동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제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면 무지개반에 갈 수 있어"라는 일반교사의 말 한마디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교사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참여 아동을 넓혀나가면서 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동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

짝 활동을 할 경우에 짝을 너무 오래 지속하게 하거나 모든 활동에서 짝 역할을 하게 하면 일반

아동에게 너무 부담이 되어 오히려 활동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합아동 역시 무리하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부담을 갖게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상대아동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장애-비장애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반아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또래가 번갈아 짝 역할을 하게 하거나 일상 활동 전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짝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짝의 부담을 줄이므로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일반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Haward Goldstein et al.,1997)

3.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성공적인 통합은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사는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짝활동에서는 짝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아동 역시 대부분은 장애아동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또 짝은 장애아동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는 보호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7세 반은 장애아동 이해 프로그램을 따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동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거나 장애아동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초기에는 아동의 호의가 장애아동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나아질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활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교사는 나름대로 고민과 연구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겠지만 별 성과가 없는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아동이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는 성급하게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아동에게 무리한 활동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잘 하던 아이가 안 한다고 아동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활동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봅시다.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아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에 따라서는 다소 싫어하더라도 활동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생각한 목표가 그 아동에게 적합한가, 목표에 적합한 활동이었나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통합보육의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상호작용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일 한 아동만 쫓아다니느라

아동이나 교사 모두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후회하겠지요. 아이들에게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교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2년 아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활동해야 합니다.

Ⅳ. 통합보육을 통해 얻은 성과(교사)

1. 아동에 대한 이해

통합을 하면서 겪은 일차적인 과제는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해 갖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애는 왜 말을 못해요?"

"선생님, 애는 왜 손을 안 잡아요?"

"선생님, 애는 왜 자리에 안 앉고 돌아다녀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교사 자신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시각장애이거나 청각장애이거나 지체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명하기가 쉽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장애와 비장애를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의문에 답해주기 힘듭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에서는 장애아동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열등한 사람이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런 답은 주기 는 곤란했겠지요. 모든 아이들(사람들)은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눈이 나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말을 빨리 배워 말을 잘 하는 아이도 있고 말을 느리게 배우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도움이 필요한 면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에게 이론적인 어려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점이 바뀌어야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교사가 아동에 따라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이 수업 중 돌아다니면 부드럽게 타이르고, 몇 번 말해도 잘 안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아동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다소 엄하게 대하는 것 같다. 나 스스로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았고 그 결과 교사가 일반 아동에 대해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일반아동 역시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교사는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이건 일반아동이건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하는 문제는 꾸준히 익혀야 할 과제-학교 준비를 위해-이긴 하지만 아동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선을 교사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이라고 생각해오면서 대충 어느 선에서 비슷한 무리라고 생각했던 아동들에 대해서도 각 아동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하도록 교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전에는 하나의 큰 무리로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 하나의 아이로 보인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아이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특수아동이란 이름 그대로 특수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특수란 물론 좋은 뜻으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느끼는 특수아동은 보통아이들과 틀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생활에 있어서 다소 느리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장애의 다양성에 대해-그것이 일반아이들일지라도- 심리적으로 먼저 수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2. 교사 협력

통합교사와 보육교사가 함께 반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교사에게 새로운 경험과 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교사는 한 교실에서 협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무엇을 상의해야 하며,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통합교사이건 일반교사이건 대부분은 한 반을 둘이서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교사가 알아서 한 반을 운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교사가 함께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교사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가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V. 끝맺는 말

통합교육은 장애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며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은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익혀나갑니다. 일반아동 역시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노력의 산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하지도 않은 내용을 우리가 거창하게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흐름에 밀려갈 지도 모르는 자신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통합보육은 교사 자신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보육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로서는 새롭게 개척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제도나 법적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지워진 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합보육을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소중함을 알기에 교사는 통합보육을 기꺼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합보육이 교사에게 주는 가치는, 장애아동이 그들의 부모에게 절망과 좌절로 시작해서 희망과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이소현, 박은혜(1998). 특수아동 교육: 일반교사들을 위한 통합교육 지침서. 서울:학지사

류은미(2000). 협동학습이 유치원에 통합 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승희(1994). 일반학급의 비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의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일 분석: 통합교육을 통한 비장애학생의 긍정적 경험. 특수교육논집, 11, 1-32.

하승연, 김광웅(1996).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특수교육논집, 13, 81-108.

Haward Goldstein, Kris English, Karin Shafer, & Louise Kaczmark. (1997) Promoting Interactions Among Preschool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Effects of a Buddy Skills - Training Program. Exce ptional Children, 63, 229-243.

◉ 강영신 · 경기, 평동어린이집

천연염색을 하면서



여름철만 되면 곱게 풀 매겨 다려진 옷을 보면 정겹다는 생각이 든다.
전통한복의 아름다움보다 생활한복의 실용성이 나를 더 이끌기도 한다.
백의민족이라 불리던 우리민족, 일부 사극에 보면 평민조차 참 화려한 색으로 치장을 하고 곱게 차려입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본다.
정말 때맞춰 일해야만 하는 농경생활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두가 길다.

난 있는 그대로가 좋다.
자연스러움이 좋다.
그래서 천연염색을 시작했다.

올해 영아를 맞으면서, 3년 내내 장애아동을 맡으면서의 고민은 염색과 전래놀이 및 노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아이로 접근하게 하고 싶었다.
성공한 것 같다.

내가 천연염색에 대한 이론을 지금 말하기는 지면이 너무 적고 나의 학식이 너무 짧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연결된 염색작업을 말하려고 한다.

다리품을 많이 팔아라.

여기저기 다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라.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가령 동대문시장은 요즘 비수기라 일요일은 쉬고 서초구청은 매주 토요일 알뜰시장이 서 재료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삼베, 마 등의 옷종류 등)
흔히 염색재료로 치자, 홍화, 봉선화, 양파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주위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염색의 재료가 있는지 둘러보아야 하고 많은 시도를 해야한다.

꽃의 개화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잠깐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재료들이 많다.
그 예가 비찌인데 포도와 같은 색을 내는 비찌는 벚꽃의 열매이다. 벚꽃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데 그 개화시기가 요즘은 지구의 온난화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리미리 정보를 얻어라.

벚꽃나무가 어디에 많은지 알아두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기를 놓치면 시장이나, 백화점, 약재상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많이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원재료를 냉동실에 얼려두기도 해야한다.
현재 우리 집 냉장고에는 아직 시도 못한 오디와 진달래가 냉동되어 있기도 하다.

다양하게 접근하라.

버찌로 염색을 한 것이 한지, 광목, 지끈, 장갑, 양말, 삼베, 옥양목, 속옷, 아이들 하얀티 등이다.
시장에서 삼베 이불을 사다가 물에 여러 번 빨아 말린 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염색 후 말려서 다시 손바느질해 어린이집 천장에 베 보자기를 만들어 걸어놨는데 느낌이 너무 좋다.
이 외에 다양한 활동으로 환경구성, 요리활동, 미술활동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구성 어린이집 천장과 벽면구성
요리활동 치자물을 이용한 깍두기 만들기, 치자 수제비, 치자물 들인 구절판
미술활동 염료를 이용한 밀가루점토, 발바닥 찍기, 염료로 물감 칠하기
놀 잇 감 헝겊인형, 염료를 이용한 지끈 활용
역 할 극 염색 천을 이용한 역할놀이

활용도를 높여라.

현재 충분한 염료재료를 얻지 못해 그 때 그 때 많은 염색을 해두었다.
광목의 경우는 헝겊인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염색을 해두었다.

짧은 기간동안에 아이들과 하면서 교사자체가 너무 신기해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천연염색은 재미있다. 그리고 신기하다.
염색한 양말을 신고 염색한 옷을 입고 동극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태어날 동생을 위해 미리 천연염색 한 양말을 선물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다양한 접근으로 시도해본 염색은 아직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다양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다.
그리고 교사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천연 염색하는 방법

재료 | 염액, 그릇(비금속성으로 염액 색깔 수만큼), 염색할 재료

만드는 방법 |

1. 염액을 만든다.
   - 포도 껍질, 장미(꽃잎만), 귤껍질, 양파껍질(겉껍질만), 치자, 애기똥풀꽃, 쑥, 자리공, 오렌지 껍질 등
   - 물을 넣고 30~50분 가량 끓인 다음(쑥은 더 오래 끓인다.) 건더기를 건져내고 10분 더 끓인다.(진하게 하려면 더 끓여도 좋다.)
   - 솔잎은 물을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갈아 거른다. 끓이면 안됨
   - 다이론 염액(빨강, 군청, 초록)– 이 염액은 구입해야하며 원하는 농도만큼 물에 타서 사용한다.

2. 물들이기
   1) 천을 염색하는 경우 광목천을 삶아서 얽은 물이 나오도록 헹궈 짠다.
   2) 초염 : 옷감을 물감에 넣고 약 15~30분 뒤적인다. 푹 잠기도록 해서 공기가 닿지 않도록 한다.
      – 꺼내서 적당히 짜고
   3) 얽은 물에 헹군다. 3분
   4) 매염제를 녹인 물에서 15~30분 뒤적인다.
   5) 얽은 물에 3분 정도 헹군다.
   6) 본염 : 2~5까지 반복하는데 시간을 30분~1시간
   7) 헹군다. 항상 3분
   8) 2~5를 또 한번 반복 30분~1시간
   9) 헹군다.

※ 매염

옷감과 염료를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색을 배운다는 건 바로 매염을 배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답니다. 옛날사람들은 가마솥에다 끓이면서 염색을 했는데 가마솥에서 나오는 철 성분이 매염제였답니다. 철은 무지하게 강한 매염제인데 단점이 있다면 제 색을 내주지 못하고 죄다 갈색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알루미늄도 매염제로 본래의 색을 내도록 해줍니다. 이 성분으로 된 것이 우리가 봉숭아 물 들일 때 뜨는 백반입니다. 물 한 양동이에 곱게 간 백반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10리터에 1티스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은이나 무쇠솔은 절대 염색에 쓰지 마세요. 그럼 뭘 쓰냐고요? 스테인레스로 된 그릇을 사용하세요. 또 다른 매염제로는 조개껍질 굴껍질 같은 것이 있는데 불에 태워서 곱게 갈아서 물을 부어두면 가루가 가라앉고 위에 희색의 물이 뜨는데 그 물이 매염제로 쓰인답니다.



※ 위 사진은 물구나무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천연염색 체험장 소개

물구나무

연락처 : 061-394-3261 휴대폰 : 017-337-7797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538번지
이용료 : 1인당 5,000원
준비물 : 염색할 티셔츠나 천

참나무와 도토리

연락처 : 031-425-4459, 031-426-8009
위 치 : 경기도 청계산
(4호선 인덕원 역에서 마을버스로)
이용료 : 12,000원 (면종류 일 경우)

천연염색

1 서울지부의 골든벨을 울려라 !

박인해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정릉 언저리는 내 유년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 날 동무들과 산딸기 찾으러 산자락을 이리저리 뒤지고, 높게 쳐 진 정릉 담벽 개구멍을 들락거리면서 버찌 따먹던 생각에 웃음이 머금어 집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스승의 날 자축겸 서울지부월례모임을 행복한 어린이집에서 한답니다.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가는 다소 먼 길이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동네니 동행하는 교사들한테 아는 체도 합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내 유년이 거기에 있을까 ·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넓혀져 있었어도 나만이 느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들어서는 골목어귀에 남아있는 축대는 정말 예전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에서는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만 같더니 정말 저에게 행복이 계속 몰려듭니다.

도전 골든벨 게임에서 내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지난주 방송된 문제만 쪽쪽 뽑아 냅니다. 저는 봤습니다. 지난주 그 프로를.)

몰아주는 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손목시계, 목걸이, 팔지, 귀걸이 게다가 거금(?)의 백화점 상품권.

와! 보물찾기도 한답니다.

5개의 쪽지를 찾았습니다.

마음좋은 사람처럼 못 찾은 사람들에게 선심도 씁니다.

여기서 건진 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삼겹살에 수박 파티까지.

후식으로 추억의 '뽑기'도 등장합니다.

피로연도 재밌습니다.

신입회원 백근영 선생님의 트롯트버전 마징가Z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나만 행복했나구요 ·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데 서울지부 회원 모두모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 난 내 유년과 내 장년이 만나는 그 곳에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연경소식 2

나는 보육교사회가 좋다 !

류지민 · 인천, 정회원

5월 회원의 날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란 소식을 접어들었다.

스승의 날도 자축할 겸 어린이집에서만 하던 회원의 날이 아니라, 인천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대대적으로 밖으로 이동을 할거란다. 장소는 00동 감자탕집!

예슬에서 모인 인천 식구들은 저마다 조금씩 들며 보였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회원의 날에 보는 얼굴들은 다들 생기 있어 보인다. 마치 풋풋한 봄바람을 안고 오는 소녀처럼...

4월부터 회원의 날에, 문화단체인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에 있는 김영택씨와 함께 노래 배우기를 했었다. 노랫말이 곱고 희망을 안겨다 주는 민중가요를 배웠는데, 이번 회원의 날엔

노래 배우기를 하지 못해 아쉽기만 했다.

허나 우리가 누구랴! 다들 지난달에 배운 노래를 다같이 복습을 했다.

노래를 듣던 누군 우릴 보고 복음성가 합창단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노래 한 소절로 회원의 날을 시작해서 우리의 짱인 이인희 선생님의 짧고 굵직한 보고를 들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회원들에게 시원한 쥬스를 돌리는 꽃미남(?)이 있었으니, 바로 이경미 선생님의 멋쟁이 신랑이었다.

나중에 감자탕 집에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정성스레 퍼주곤 했으니, 어찌 인천지부에서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여- 아내에게 사랑 받는 남편,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한 수 배우시길...

감자탕 집에선 신입회원 환영식이 있었다.

이번에 인천지부에 들어온 새내기 회원으로는 김원희 선생님(예슬), 강나라 선생님(예슬), 권오경 선생님(나래), 이은미 선생님(풍물깨비), 권해정 선생님(부천근로복지공단) 이었다.

아쉽게도 개인사정들이 많아서 김원희 선생님과 강나라 선생님만 참석하게 되었다.

새내기 선생님들~ 앞으론 회원의 날에 눈도장 콕콕 찍자구요~

오랜만에 맘껏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

누가 그랬던가?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라고.....

오월의 어느 토요일 밤..

그렇게 난 행복 한 가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 끝~!

참, 그리고 보니 회원의 날에 온 선생님들을 소개 안 했다. 자자~ 이름 나갑니다요~

고정미 선생님의 덜덜하고 소박한 웃음소리가 좋다!

이인희 선생님의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좋다!

최은아 선생님의 남을 잘 챙겨주는 넉넉한 배려심이 좋다!

이현주 선생님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말솜씨가 좋다!

위준임 선생님의 조금 나온 배를 쓰다듬는 예비엄마의 아름다운 미소가 좋다!

이 순 선생님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우주 같은 포근함이 좋다.!

김원희 선생님의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치와 유머가 좋다!

이은희 선생님의 깔끔하고 당당한 모습이 좋다!

강나라 선생님의 맑고 밝은 순수함이 좋다!

이진실 선생님의 조용하면서도 단아한 분위기가 좋다!

이연순 선생님의 행복에 빠진 새색시의 수줍음이 좋다!

이경미 선생님의 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사랑 가득한 시선이 좋다!

이숙희 선생님의 항상 소녀 같은 모습이 좋다!

연경소식 3

우리 남편이요 [기쁘다 내조상]을 받았어요.

김 숙 연 · 부산, 반디놀이방

뜨뜻한 방구들에 배 깔고 엎드리고 싶은 마음을 추슬러 우산을 찾아 집을 나섰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갈까 말까.

당연히 가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하다 121번 버스에 올랐다.

스승의 날 자축행사장인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서자 선배님들의 마음 씀씀이와 노고가 한눈에 들어와 비가 온다는 이유로 움직이기 귀찮아했던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 졌다.

유부초밥, 김밥, 튀김, 잡채, 수육 등 맛깔스런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준비한 뷔페식 저녁.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난 뒤 그 동안 열심히 일하신 선생님들의 시상식이 있었다. 몇 분 선생님들께 시상을 하고 [기쁘다 내조상]에 남편 이름을 불렀다.

부산지부가 필요로 할 때 몇 번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상까지 받을 줄이야. 남편과

같이 오지 않은 것이 아쉬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남편 대신 시상을 했다.

그리고 10년 장기근속 선생님께 색종이를 잘라 붙여 만든 화관을 씌워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그 화관이 너무 예뻐서 나도 가졌으면 하는 작은 욕심이 일었다.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곱디고운 심성상]에 김 숙연 선생님!'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얼떨결에 화관을 받고는 앞으로 더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치도 않은 말과 함께 자리로 들어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내 자신이 뻔뻔스럽고 부끄럽던지.

남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때론 내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야단치곤 하는 나에게 '꼽디고운 심성' 이라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나를 구제 해 주려는 듯 모두들 일어서서 원을 그려 간단히 몸 풀기 운동을 했다.

서로의 등을 두들겨 주고, 안마도 해 주고, 머리 땃사지까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다소 내성적이던 성격 탓에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리지 못했던 기분이 어느새 사라지고 화기애애함 속에서 인간 경매에 들어갔다.

선생님들의 특기를 살려서 자신 있는 운전 솜씨의 차량운행경매, 손재주가 있어 인형 만들기를 해 줄 선생님, 사진작가이기도 한 딸기선생님의 사진촬영 경매, 몸을 담보로 한 일일교사 경매 등등 서로 입찰을 받기 위해 목청 높여 가격을 부르는 선생님들 속에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어 갔다. 딸기 선생님의 사진촬영 경매권은 무려 15,000원에 낙찰되는 행운도 있었다. 경매에 붙여진 선생님들의 임무 완수를 위해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까지 생각을 해 놓으신 선생님들. 정말 색다른 경험 속에서 보육교사회 부산지부의 단결력과 넘쳐흐르는 힘을 엿볼 수 있었다.

경매가 끝나고 난 뒤 정성 들여 만든 부적을 나누어 주셨다.

원아모집에 힘들어하던 어린이집에는 원아 대박 부적을, 교사를 못 구해 힘들어하던 놀이방에는 3년 장기근속 부적을, 몸이 약한 선생님께는 건강에 대한 부적을, 몇 몇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던 일들을 부적까지 만들어 주는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으셨다.

스승의 날 자축연 마무리로써 촛불을 들고 동그랗게 둘러서서 미리 적어 놓았던 소원지를 꺼내어 읽었다. 각자 적은 소원지를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읽어 주고 느낌들을 이야기했는데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무척이나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도 코끝이 찡해오는지.

작년 갈비 집에서 처음으로 참석해 보는 스승의 날 행사 때도 재미있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이번 행사는 더욱더 오랫동안 가슴으로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부산지부에서 받은 기운을 한껏 안고 집으로 돌아오니 막내 기쁨이랑 남편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쁨이가 하도 나가자고 졸라서 나왔대나. 내친김에 길 건너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를 시켜놓고 남편이 받은 상을 건네주었더니 입이 막 벌어진다. (상 받고 안 좋아 할 사람 없겠지만) "다음에도 필요하면 불러라. 시간만 되면 갈께" 하는 남편의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스승의 날 행사와 부산지부 선생님들의 열심히 사시는 이야기들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잠든 기쁨이를 업고 집으로 왔다.

스승의 날에 받은 3년 장기근속 교사 부적을 놀이방 출입문 위에 붙여 놓았는데 지금은 교사도 구하고 원아도 몇 명 더 들어 와서 부적의 효험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부산지부 선생님들 같은 마음이라면 뭐든지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육교사회가 있어서 내 자신이 발전 될 수 있어 좋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열심히 삶을 꾸려 나가는 좋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나도 같이 호흡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운이다.

새터 어린이집의 아동건강에 관한 민간요법

김 정 온 · 서울, 새터 어린이집

**[아래의 글은 지난 7월 5일 본회 교육센터 '영아교사 강좌' 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민간요법은 새터 어린이집에서 영아건강관리를 위하여 5년간 실시해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침으로 따주기

· 열났을 때 - 손가락 따주기
· 체했을 때 - 손가락 따고, 배 마사지 해주기

부항요법

· 열났을 때 - 엉치뼈 부근
· 벌레(모기 등)에 물렸을 때 - 물린 부위

풍욕

효능 →

·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 피부를 튼튼하게 단련시키고 피부가 직접 호흡할 수 있게 해주므로 폐가 튼튼해진다.
· 또한 변화가 심한 날씨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몸이 아프기 시작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
·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죽염바셀린을 발라주면서 문질러주면 빨리 아물 수 있다.
· 한걸음반과 쑥쑥반은 오전10시쯤에 하고 영아들은 오후 3-4시에 한다.

방법 →

· 처음에는 일주일쯤 시간을 두어 첫날은 5분, 둘째 날은 10분, 셋째 날 15분…
· 5분씩 늘려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30분 정도 벗겨 놓으면 적당하다. 단 매일 해야 한다.
· 그리고 공기가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 아이들을 벗겨놓고 몸을 수건으로 문질러 주거나 손으로 비벼준다.
· 가슴에서 바깥쪽으로 땃사지를 해 준다. 풍욕 하기에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나 오후3시쯤이 적당하다.
· 젖먹이 영아들은 옷을 입히기 전 아이를 눕혀놓고 운동을 시켜주면 더욱 좋다.

감족탕(足湯)법

효능→

· 요독증, 복막염, 자궁내막염, 장염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무좀이나 동상 등에도 유효하다. 코감기나 코막힘에는 1회 정도로 낫고, 어린이 감기에 특효이다.
·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하게 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신장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준다.

방법→

· 두 발이 담길만한 두개의 그릇에 따뜻한 물(40~43℃)과 찬물(14~15℃)을 준비한다.
· 아이의 바지만 벗기고, 윗몸은 따뜻하게 감싼 다음 복사뼈까지 온-냉-온-냉-온-냉 식으로
· 각각 1분씩 서로 번갈아 담근다.(반드시 온수에서 시작하여 냉수로 끝낸다)
· 발을 온수에서 냉수, 냉수에서 온수로 옮길 때는 발에 묻은 물기를 닦아준다.
· 다한 후 잘 닦아서 양말을 신기고 따뜻하게 해준 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쉬게 한다.
· 영유아의 감기의 경우 오전엔 족탕을 시키고 오후3시 이후에 각탕(脚湯)을 시켜주면 웬만한 감기는 3-4일 이면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각탕(脚湯)

효능→

· 고열, 미열과 모든 열 증상에 대처하는 요법. 오후3시 이후에 실시, 그래도 열이 안 내리면 3시간 이후에 다시 실시하면 열이 내린다.

방법→

· 깊은 물통에 섭씨 40도의 더운물을 준비한다.
· 무릎 밑까지 담근다.
· 섭씨40도 물에 5분간
· 41도까지 올려서 5분간
· 42도까지 올려서 5분간
· 43도까지 올려서 5분간 모두 합쳐 20분간 실시 후 냉수(섭씨14도-18도) 냉수에 2-3분간 담근다. 땀을 낸 후 젖은 옷은 갈아입고 몸을 보온을 하고 감잎차에 죽염을 타서 마신다.

겨자요법

효능→

· 겨자요법은 휘발성 겨자유의 작용을 응용한 방법으로, 피부표면을 자극시켜 내부의 울혈을 밖으로 확산시켜 세균의 먹이를 빼앗아 균을 없애는 방법이다.
· 폐렴, 기침, 열날 때, 신경통, 요통, 목 아픈데, 어깨가 뻐근할 때, 피로회복 등에 좋다.

방법→

겨자반죽을 이용할 때

· 겨자와 밀가루(우리 밀을 사용)를 1:1로 섞어서 따뜻한 물로 반죽한다. (반죽은 그릇을 엎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
· 반죽한 것을 두 겹의 천 위에 아주 얇게 펴서 바르고 그 위를 비닐로 덮는다.
· 천 부위를 환부에 붙인다.(겨자반죽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
· 붙인 뒤 5분 정도 되면 떼어내고 피부를 잘 닦은 후 마그밀 액이나, 로션 등을 발라준다.
(어른인 경우는 견딜 수 있으면 15~20분 정도하고, 시간이 다 안되었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리면 그만 한다)

손수 만든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1. 죽염 바셀린

아토피성 피부염, 벌레물린 곳, 상처난 곳, 기저귀발진

만드는 방법→

죽염과 바셀린을 1:2로 섞어 사용한다.(죽염은 구죽염으로 사용)

2. 중이산 바셀린

중이산 가루는 중이염에도 효과가 있다. 농가진 등 살이 짓무르는 피부병에 발라주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면서 새살을 돋게 해준다.

만드는 방법→

백반을 뚝배기에 넣고 약한 불에 올려놓아 위에 투명한 막이 형성되어 딱딱해지도록 졸인다. 다 졸여지면 딱딱한 부분은 걷어내고 나머지를 곱게 빻으면 된다.
중이산 바셀린은 중이산과 바셀린을 1:2 비율로 섞으면 된다.

3. 죽염+감잎차

눈병이 생겼을 때 한 두 방울 떨어뜨려 준다. 콧물이 나오거나 코가 꽉 막혔을 때 콧속에 넣어 준다.

만드는 방법→

맛을 봐서 아주 싱겁다 할 정도로 죽염과 감잎차 우린 물을 섞어서 사용한다.(구죽염 사용)
영아의 경우 우린 물을 한번 거즈에 걸러서 넣어 준다.

4. 죽염목욕

기저귀발진이 심할 때, 땀띠가 온몸에 퍼졌을 때,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킨 후에 머리만 물기를 닦아주고 그대로 말린다.

5. 매실 농축액

열났을 때, 설사할 때 한 숟가락씩 먹인다.

6. 숯환-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

먹을거리에 대해 참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맴~맴~ 우는 여름이 되면 산천초목이 무성하고 모든 생물은 경쟁하듯 성장의 고속 주행을 시작합니다. 불볕 더위 · 찜통 여름이란 말은 너무 흔한 단어가 되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가릴 것 없이 나무와 숲의 울창한 그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봄에 움직였던 활발한 신체리듬에 가속이 붙어 인체 내의 신진대사도 사계절 중 가장 왕성해집니다. 신진대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정상적으로 섭취된 물질을 다른 화합물로 변화시켜 주는 생체의 화학반응입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엄마들의 관심 대상인 · 피부 노화 · 또한 이 신진대사가 부실할수록 빨리 이뤄집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신체 내 노폐물도 많아집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땀과 함께 이 노폐물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 오장육부의 청소 기능이 전체적으로 가동됩니다.

때문에 체력소모가 증가하는 만큼 다시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름의 특징입니다.

여름에 흔한 질병☼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는 여름철에는 콜레라 · 이질 · 장티푸스 등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장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정 전염병 1종인 세균성 이질은 전염성이 높고, 심한 설사를 일으키며 갑자기 탈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 또한 높아 아이부터 어른 모두에게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듯 여름 질병은 기후와 관계가 많습니다. 비가 며칠동안 부슬부슬 내리면 멀쩡한 아이가 별 이유 없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어른들은 · 해 나오면 괜찮다 · 라고 하는 연유가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장마 · 태풍 등의 심한 일교차,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에 의해 쉽게 감기가 걸립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계속해서 아이에게 틀 경우에는 아이의 체온이 떨어져서 사기(즉, 나쁜 기운)가 쉽게 들어오도록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름 감기는 초기에는 몸살,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기침이 심해집니다. 또 열은 그리 심하지 않지만 결막염이나 설사를 동반한 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긴 팔 옷을 입혀 재우고, 선풍기와 에어컨은 신생아일 경우 가능하면 삼가되 사용할 시는 1시간에 한번 정도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돌 전 아이들은 살 접히는 곳 등에 땀띠와 기저귀 발진 같은 피부질환도 많이 생기며, 조금 큰 아이들은 물놀이에 의한 결막염, 중이염이나 귀 점막에 상처가 생겨 발생하는 외이도염 등이 여름에 흔히 보는 질환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건강한 여름나기 4가지 수칙☼

- 바깥기온과 실내온도의 차이는 5℃ 정도가 적당합니다.
- 정기적인 목욕 외에 1~2회 정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합니다. 지나친 찬물은 좋지 않고, 샤워할 때는 비누 사용을 자제합니다.
- 덥다고 옷을 벗겨 놓으면 땀이 차서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면 소재의 얇은 옷을 입혀 땀을 흡수하게 하고, 자주 갈아 입혀 주면 더욱 좋습니다. 배에 이불을 덮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를 하기 쉬우므로 배 부위라도 수건을 덮어서 재웁니다.
- 식사 전 · 후, 음식물을 요리하거나 손으로 만질 때, 화장실을 다녀 온 후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여름에 전하는 한방조언☼

한방에서 · 균형 · 을 중요시하여 질병 또한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과도하게 넘치면 덜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치료합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으므로 영양공급을 충분히 받아 공급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비 에너지와 공급 에너지의 균형을 이룬 한방식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여름 무더위에는 땀을 비롯하여, 호흡과 피부 표면을 통해 수분까지 증발되어 체내 수분인 진액이 부족되기 쉽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 음허 · 라 말하며 양방의 탈수 증상에 가까운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뛰어 놀거나 운동하는 일을 잦기에 언제나 진액을 필요이상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해 아이들을 자주 쉬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 여름에는 과다한 열량 소모로 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 기허 · 라 부릅니다. 이런 기허와 음허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면 흔히 · 여름 탄다 · 는 주하병에 걸립니다.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잘 나타나는 이 증상은 먼저 입맛을 잃으면서 머리가 멍하니 아픕니다. 또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졸리며, 물만 들이키거나 땀을 줄줄 흘립니다.

반면 여름을 타긴 타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이 현상은 물살이 찐다고 표현하며 한방에서는 · 습사 혹은 수독 · 이라 말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냉방과 찬 음료 등으로 소화불량 상태가 되고 수분 대사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는 한여름이라도 아침과 저녁에는 밖에서 뛰어 놀아 적당히 땀을 내게 하며 더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을 위한 섭생법☼

방금 몸을 씻고도 다시 덥다며 땀을 흘리는 여름.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름이면 초복 · 중복 · 말복을 지켜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풍습은 남아 삼계탕이니 해서 몸보신을 하니 예나 지금이나 여름에는 잘 먹어야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름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섭생법으로 첫째는 과일과 채소를 듬뿍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나는 제철 과일과 채소는 그 성질이 매우 냉하며, 수분과 전해질, 비타민 등이 풍부합니다. 때문에

여름 열기에 비오듯 땀을 흘렸거나 체력 손실이 많은 뒤에는 수박 · 참외 · 자두 · 포도 · 멜론 · 토마토 등이 특효약입니다.
그러나 평소 위장이 냉하고 배가 자주 아파서 설사가 잦은 아이는 찬 과일의 섭취를 피하고 잘 익은 토마토 ·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는 숙성한 복숭아 · 바나나 등을 먹이면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찬물과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면 비위기능이 떨어져 복통, 설사, 장염 같은 위장 질환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볕 더위 달아오른 인체는 순리에 맞게 냉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따뜻하고 기력을 돋우는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아침저녁 서늘할 때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수 천년 전「내경」이라는 한방 서적에 사계절 몸을 건강하게 하는 법에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 봄에는 늦게 잠자고 일찍 일어나며 공원을 산책하고…… 여름에는 늦게 잠자고 일찍 일어나서 해를 피하지 말고……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닭이 울 때에 같이 기상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반드시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 하며…….

읽고싶책 □□□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특효요방 전서 (지은이)-원홍림,영해 -학민사
잔병치레 없는 신토불이육아법-박미자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최민희 -다섯수레
알기 쉬운 한방육아 -이길환 -동화문학사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지음
딱1년만 자연주의로 살아보기- 이진아지음
아토피를 잡아라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시공사
자연원리요법(상,중,하)-정산지음-고문사
유아를 위한 영양과 식단-삼성 개발 센타 새책3-영서원
한국의 죽 (조상의 지혜가 담긴)-한림출판사
자녀 교육 이제는 영성 이다.-정신세계사
놀이감으로 길러주는 상상의 날개-한울림

김정애 · 부산, 회원

부산 〈포구나무 어린이집〉 김진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포구나무 어린이집〉 김진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휴직 중이니 집으로 방문하면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계획을 수정하고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휴직하자마자 부산지부의 총무를 맡게 되어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며 골치 아파하는 김진희 선생님을 잡고 얘기를 좀 해보려니 생각과 말이 자꾸 분산되어 계산도 인터뷰도 자꾸만 헛갈렸던 걸 이해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부 회원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96년 포구나무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회원활동을 했지요. 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했고(sports가 아님), 졸업 후에는 노동 현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첫 아이를 가지면서 노동현장에 계속 있기는 힘들었고, 또 육아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절감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교육원을 다니게 됐지요. 한편으로는 사회 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포구나무 어린이집〉은 부산지역에서 '교사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어린이집이죠. 장단점을 말한다면?
포구나무가 교사공동체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지 3년째 되네요. 특징은 교사 모두가 주인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교사 공동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동업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로 가려면 함께 지켜야 할 것, 함께 지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주인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교육 내용, 지향하는 바를 맞춰나가야 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게 아니니까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오랜만에 휴직하신 것 같은데 몇 년만에 쉬는 건가요?
쉬면서 꼭 하고싶은 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결혼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둘째 낳고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한 것 말고는 처음이에요. 근 8년 정도 보육일을 했네요. 청춘을 바친 것 같은데… 그런데 슬프네요. 쉬면서 꼭 하고 싶은 건 '앞으로 뭘 할건지'에 대해 고민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보육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전과 컴퓨터(인터넷만 들락거리는 수준이라)를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로 고민하고 있는 일을 뭔가요?
'아토피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먹을거리 ·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큰애가 세 살 때부터 아토피를 앓았는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져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몇 년을 지켜보니 너무 힘든 병이에요. 둘째도 아토피와 유사한 발진이 생겨 낫게 해야겠기에 휴직을 하게 됐죠.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요즘은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치하지 않고 빨리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 한계, 너무 내 일에 집중하고 산 것 때문에 후회가 많아요. 먹을거리나 환경에 단련되는 게 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가리는 식품도 많아 밥 말고는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간식, 주식 모두 일일이 가려서 만들어 먹여야 하고, 옷도 매일 삶고, 이불도 매일 말리고-. 인터넷에서도 아토피와 관련된 정보만 찾아다니죠.

얼른 좀 좋아져야 할텐데 참 큰일이네요. 부산지부 총무 일을 맡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지금 맡고 있는 총무는 '경리'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더 힘을 보태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현재는 지회활동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일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10년 후를 전망해 본다면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금방이잖아요. 10년 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기 위해 이제 막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에 지쳐 있는 모습은 아니고 싶고, 여유로워지고 가슴도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데 나부터 꿈을 잊고 살았던 거 같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지금 할 일이겠죠.

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에게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보육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보육현실을 극복하는 게 만병통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임할 여력이 안되네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원간의 정, 소속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보육교사들을 대변해서 한마디 한다면요?

보육정책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노동의 기본 3권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요.

너무 늦게 물어봅니다. 남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일반노동조합'에서 일하는데 너무 바빠요. 내가 못하는 몫까지 하도록 받쳐줄 생각이예요. 쉬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네요.

얼른 윤신이와 준모가 아토피에서 해방되어 진희 선생님이 몸 고생, 마음 고생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한보회 전체행사에도 참여해서 회원들과도 한자리에서 어울리며 소속감과 정을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 차례 계산을 틀려가면서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김진희 선생님의 사진을 실으려고 했으나 본인이 사진이 없다고 하네요. 어마 카메라를 무지 싫어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김진희 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여름 수련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동어린이집의 아이들

윤금주 · 경기, 평동어린이집

01 누가 더 큰가?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자기 김치가 크다고 아단이다.

관호 : 내가 커
승주 : 아냐 박소정이가 더 커
그러자 옆 책상에서 먹고 있던 봉주가
봉주 : 거인이 더 커
윤화 : 아냐, 도깨비가 더 커
기현 : 로보트가 더 커
한범 : 큰 아빠가 더 커
관호 : 아빠가 더 커
봉주 : 거인이 더 커
승주 : 선생님, 시끄러워서 못 먹겠어요.

02 누가 그랬는데? 간식으로 우유를 마시다가

요셉 : 이거 어린이집 꺼야
기현 : 아냐, 내 꺼야
요셉 : 어린이집 꺼야. 선생님, 이거 어린이집 꺼지요 ·
교사 : 우리 모두 함께 먹는 거니까 우리 꺼라고 하자.
기현 : 거봐. 어린이집 꺼지

03 바보는 누구 어진이가 다리를 높이 올렸다고 보라고

어진 : 선생님 봐보세요
교사 : 음-
옆에서 보고 있던 승수
승수 : 선생님, 바보세요?
교사 : 어진이가 다리 올리는 거 보라고…
승수 : 그럼 누가 바보예요?

04 소정이가 좋아요

교사 : 축구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니 ·
윤화 : 안정환이요
한범 : 안정환
아이들 : 안정환
기현 : 박지성 좋아요
교사 : 나도 박지성 좋아하는데…
봉주 : 나도 박소정 좋아요

아기 참새가 나에게로 온 의미는 뭘까?

김숙자 · 서울, 튼튼이 공부방

2002년이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변화가 11시쯤 출근한다는 거다.
-이 부분에선 항상 다른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난 다른 때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며,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띈 아기 참새. 첨엔 그냥 지나갔다. 한 10발자국쯤 걸었나? 다시 돌아와서 보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쉬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고,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바라보다 데리고 가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간의 경험이 강아지만 만져봤던지라 그냥 만지지는 못하겠고… 책과 손수건을 꺼내 간신히 들고 왔다. 아이들의 만들기를 위해 두었던 스트로폼 통에 넣어두었다가 한 시간쯤 지나 손수건과 핀셋을 이용해 참새 다리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고 내려놓았더니 사물함 밑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 거다. 계속 그곳에 있어 어쩌하지 못하고 그냥 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다른 날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덥다며 늑장을 부렸던 아이들인데 거의 달리다시피 하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참새를 찾곤 아픈 것 같다며 동물 병원에 가잔다. 참새가 동물 병원에 병원에 확인(참새가 가도 되는지)을 먼저 해본 후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스로 가겠다는 아이들이 생기고…(평소엔 좀 변질거리는 녀석들인데…)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냥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만 했단다. 아이들이 들어가서인가? 난 밖에서 지갑 들고 대기중이었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또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 그곳에서 두 정거장 그리고 공부방에선 세 정거장 거린데 모두들 찬성이다. 그리곤 걸어서 갔다. 덥지만 불평 없이.

그곳에선 아픈 것 같진 않고 기운이 없는 거라면서 있던 곳에 갖다 놓으라고 했단다. 첫 번째 갔던 곳보다는 친절하다며 만족해하는 아이들. 그런데 아기 참샌 그냥 길 한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날지도 못하는 참새를 어떻게 그곳에 두지 ·

결국 공부방에 돌아오며 당분간 아기 참새를 키우기로 했다. 날 수 있을 때까지만. 공부방에 돌아온 아이들은 숙제도 하지 않고 아기 참새 집을 만드느라 바빴다. 시트지를 오려 나무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어 붙이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참새가 본다며 좋아한다. 쌀을 구해오는 아이, 물 떠오는 아이, 2층에 올라가 인터넷으로 참새에 대해 알아보는 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하고 있었다. 간식으로 먹을 수박을 자르는데 아이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렸다. 마치 월드컵 경기에서 한 골 넣었을 때처럼… 한 아이가 참새를 주려고 수박을 가져갔는데 입을 벌리고 먹었단다. 그리곤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더니 아기 참새는 계속 소리를 내고 주변에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과 아기참새 엄마, 아빠가 아닐까 라며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데 참새들은 끝내 내려오지 않고.

7시가 되었는데도 한 아이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기 참새가 걱정이 된다며 함께 자고 싶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 나의 마음도 개운하지 않다.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수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일 처음 하던 일이 참새랑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야기하면 아기 참새가 뭔가 알아듣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고 소리를 낸다. 상자에서 나와-그래도 통은 꼭 상자 안에서 쌌다- 숨어있어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참새를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까지 멀쩡하던 참새가 인체의 신비 특별전을 보고 왔더니…

그날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인체의 신비 특별전을 가기로 일주일전에 약속을 했었다. 전시장에 들어가 전시물(?)을 본 한 아이의 첫마디가 "닭고기 같애!" 였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 이후 난 일주일정도 고기를 먹지 못했었다.)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있다는 건 무얼까?

공부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모두 참새를 찾았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의 찾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젠 아픈 것이 다 나은 것 같았고, 조금씩 날기도 해 날려보낼 날을 기다렸는데… 우리들이 돌아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참새는 죽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묻어주었다.

다음날 공부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허전함이 느껴진다. 아이들도 허전해 하고…

밖에서 들리는 참새 소리가 예전하곤 틀리게 들리고, 아기 참새가 나에게로 온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우울하게 지냈다. 3일 동안의 생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그리고 며칠 뒤 전시회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애경백화점 서점에 들어가 책을 보다가 충동 구매(난 충동 구매를 안 하는 편임)를 한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읽다가 아기 참새가 나에게로 온 의미를 알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 한 아래의 구절을 읽으며…

"먼저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집착에 기초한 사랑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의 느낌은 더욱 강하고 깊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훨씬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싯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동물을 본다면, 당신을 자연스럽게 그 고기의 고통을 지켜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물고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오, 이 물고기는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자비심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그 물고기 역시 감각이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집착이 섞이지 않은 이런 자비심은 더 건강하고 훨씬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비심,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찾아 온 아기 참새를 생각하며…

좋은 그림책 소개



바람이 휙, 바람이 쏴

부제- 숲의 요정들이 들려주는 꼽추 형제 이야기

고영미 - 경기,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비룡소 / 에벌린 하슬러 지음 / 케티 벤트 그림 /
유혜자 옮김 / 가격7,500원 / 32쪽 / 분류-세계의 옛이야기5 /
권장연령-6세 -초등저학년

옛이야기는 언제나 읽어도 재미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곤 한다. 아무리 책을 읽어주기 귀찮을 때라도 옛이야기 책만큼은 읽어줄 수 있는 건 특별한 재미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비룡소에서 세계의 옛이야기 시리즈를 만들 때 모두 다 사서 보리라고 결심한 터라 내용이야 어찌됐건 일단은 사고 보자는 맘에 선택한 책이었다.

책을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약간은 낯설다. 아름답다거나 부드럽다거나 눈에 확 들어온다는 등의 수식어가 안 어울린다. 창조적이라는 말보다는 특이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싶다.

대략의 내용은 우리 나라 혹부리영감 이야기와 비슷하다.

검모습도, 처한 환경도 같은 꼽추 형제 레오와 메오가 있었다. 형 레오는 착하고 순하며 자연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정성스럽고 부드럽다. 반면 동생 메오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며 삶에 대한 태도나 자연에 대한 태도 모두 거칠다.

동생 메오 대신 오두막에 지붕을 고치러 간 레오는 숲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된다.

숲의 요정들은 착한 레오에게 선물로 등의 혹을 없애주는데.... 뒷이야기는 직접 사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멀디 먼 스위스의 이야기지만 옛이야기가 가지는 독특한 재미 (반복과 권선징악 등)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 인가보다.

스위스의 태신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슬러라는 작가가 정리 한 것이라고 한다.

말로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일 이었을 텐데 그림을 그린 케티 벤트의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든다. 숲의 요정들은 정말 특이한데 이 작품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을 듣게된 이유에 한몫 단단히 했을 것이다.

흑백과 칼라의 절묘한 조화, 초상화 기법 같은 섬세한 선의 그림이 처음엔 낯설지만 자꾸 보면



정도 들고, 친해지듯이 오히려 정성스러워서 좋다. 난 개인적으로 캐리커처식의 간결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서 더욱 그럴지만.....

아무튼! 다섯 살 아이들도 한번 듣고 줄거리를 뺄 정도라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림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기는 하지만 워낙 이야기가 재미있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해 하지 않았다. 만화같이 이야기 장면 장면을 조각그림처럼 그려서 배치 한 것도 특이한데 한 페이지에 여러 장면의 그림이 교묘히 편집되어 자꾸 보면 더욱 그림이 좋아질 것이다.

그림책의 이야기들 중 명 대사가 있는데,

착한 레오가 산에 대고 외친다. "산아, 너 멋지다" 그러자 산이 외친다 "너 멋지다" 라고,

못된 메오가 계곡에 대고 외친다. " 못생긴 나무" 그러자 계곡이 외친다 "못생긴 아우" 라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우리 옛 속담 생각도 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이야기도 생각나면서 베시시 웃었다. 그림책 읽을 때마다 결심한바가 있다.

아이들에게 고운 말 써야지!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남편이랑 아들놈에게도 우리 부모님께도 그리고 뒷동산이랑 텃밭에서 조용조용 자라는 고추랑 옥수수에게도_ 여러분께도.

"보육교사회 회원여러분! 너무 멋지다"

참고로 **비룡소**에서 나오는 옛이야기 시리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

세계의 옛이야기 1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염소 독일편 / 그림 형제 지음 / 펠릭스 호프만 그림 / 김재혁 옮김
세계의 옛이야기 2	일곱 마리 까마귀 독일편 / 그림 형제 지음 / 펠릭스 호프만 그림 / 김재혁 옮김
세계의 옛이야기 3	찔레꽃 공주 독일편 / 그림 형제 지음 / 펠릭스 호프만 그림 / 한미희 옮김
세계의 옛이야기 4	설탕으로 만든 사람 그리스편 / 아니카 에스테를 지음 / 율리아 구코바 그림 / 원미선 옮김
세계의 옛이야기 5	바람이 휙, 바람이 쏴 숲의 요정들이 들려 주는 꼽추 형제 이야기- 스위스편 에벌린 하슬러 지음 / 케티 벤트 그림 / 유혜자 옮김
세계의 옛이야기 6	두루미 아내



꿈은 이루어진다.

이선미 · 본회 보육정책위원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월드컵이 열려 온 나라가 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찌 우리 잊으랴' 던 6.25는 4강전으로 '아, 6.25 가자, 4강으로' 가 되어 TV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날의 카드섹션이 '꿈은 이루어진다.' 였는데 2002년 그 꿈은 무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악마가 되어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리마다 모여 모두들 가슴을 토해냈습니다. 차도가 광장이 되고 태극기가 치마가 되고 모두들 'BE THE REDS'가 되어 거리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45년 광복 때나 보았고 가깝게는 6.10 항쟁 때나 보였던 자발적인 참여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축구로 모아졌으니 사회적 현상으로는 가히 혁명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16강에 아니 4강에, 결승에 오르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여 응원을 하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잊혀졌던 꿈을 6.13 지방선거에서가 아닌 월드컵이라는 공간에서 분출하는 우리의 모습에, 어느 공간에서는 저 꿈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게 됩니다. 개인으로 갇힌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깨동무할 주위가 없다는 것이 '공동체' 를 향한 열망이 되어 거리응원의 함성 속에 자리를 찾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전에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 스포츠라는 것이 자주 사용되어 졌습니다. 집권한 자에 의해 생겨난 프로 스포츠와 거대한 경기에 동원되어지는 관중에 익숙한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응원을 하고 모이고 기뻐하고 나누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리에겐 정말 '광장' 이 필요했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자체가 갖는 역동성과 축제의 의미와 더불어 '16강 기원' 이라는 그야말로 도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염원이 모두를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붉은 색의 이미지도 날려보내고 경건의 대상이던 태극기마저 악세서리로 만들어 모든 금기와 엄숙함을 한방에 날려 버렸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화를 외치던 386세대가 선거 때 후보가 되어 나타났지만 10대, 20대는 월드컵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세대의 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감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은 갔지만 저마다의 가슴에 남아있는 꿈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축제로 만든 것 역시 '우리들' 이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묻혀 제 빛을 다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서 단 몇 줄로 쓰였던 피바노바를 만드는 파키스탄 아이들과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하던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 지방선거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던 여성후보들, 미군 차량에 치여 죽은 여중생들, 그리고 그 신문에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꿈과 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꿈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으로 모여졌던 열정과 기원이 서로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고단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휴식을 위하여.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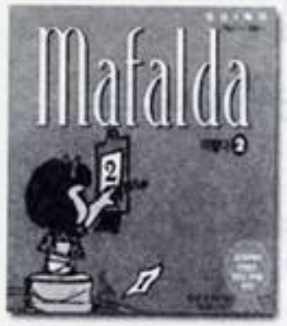
아이들과의 생활로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보육교사의 나이는 자기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의 나이와 같은 거라고 우스개 소리로 말하지만 때로는 나의 생활연령에 걸맞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보육교사들의 삶에 잠시 휴식과 새로운 기분전환이 될 수 있도록 어른이 향유할만한 다양한 문화영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에 한줄기 청량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Ⅰ.

어린이집에서 어른 뺨치는 말솜씨로 어른을 당황하게 하는 아이들을 가끔 본다. 어른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아니다 싶으면 선생님 체면 따윈 싹 무시해 버리면서 잘못을 지적한다. 만약 당신이 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당근과 시금치 먹기의 잇점을 설명하면서 조금은 낯이 간지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이 아이어른들의 맹공이 시작된다. 슬그머니 식판을 치우려는 당신에게 "왜 선생님은 당근 다 안 먹었어요?"하고 편치를 날린다.

그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누구라도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이라고 입 속으로 우물거려 보지만 이미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려고 애써 온 당신의 노력은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정말 이런 아이들이 반에 한 명만 있어도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어른들이 교육적이라는 말로 숨겨놓은 허위와 가식을 벗겨내는 이런 아이들이 없다면 어른들은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바빠서 조금도 발전할 수 없었으리라. 만약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날카로운 눈과 귀에 포착되는 세상의 문제들에 좀더 솔직하게 귀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천민 자본주의와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길을 잃은 아르헨티나의 어른들에게 세상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꼬마 여자아이 마팔다를 만나면서 때때로 내가 얼마나 타협하며 사는 존재인지 반성하게 된다. 여러분도 이 깜찍한 아이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마팔다〉는 만화책이다. 유아교육전문서라고 이름을 단 책 중에도 여러 종류와 질을 가진 책이 있듯이 만화책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일반 만화방이나 대여점에서는 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담겨 있는 놀라운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마팔다

키노 글, 그림
조일아 역
2002년 5월 초판 발행
아트나인
권당 3,500원

매우 저렴한 편이다. 물론 판매용 책이 대여용 만화책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화의 수준을 이 책은 훌쩍 뛰어넘는다.

마팔다는 스프 먹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 나라 아이들이 푸르죽죽한 시금치죽을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라.) 라디오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듣는 것을 좋아하며, 세계의 모습이 아직도 그렇듯이 졸렬한 정치와 핵무기를 둘러싼 강대국의 자존심 싸움과 굶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이상한 어른들 때문에 지구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여자아이이다. 이 만화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아르헨티나의 사회문제와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극심했던 시절의 이야기라 오늘날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과히 다르지 않으며 그 점은 인류의 비극이다.

새해 아침, 마팔다는 새로운 해가 시작된 기대감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구상에 기아와 빈곤이 말끔히 사라졌어? 핵무기도 해체됐어? 응?"

그러나 2002년인 지금도 마팔다의 아빠처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가."

마팔다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그럼 뭣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마팔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건 좋은데 이제는 우릴 이 진흙탕 속에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 진흙탕을 빠져 나올 방법이 있을까?



오시모시스 존스

감독 패럴리 형제
주연 빌 머레이
목소리 출연 크리스 락, 로렌스 피쉬번
2001년 제작
비디오 출시 2002년 3월

II.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텅 빈 위장은 꼬르륵거리는 소리로 무신경한 입과 목구멍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고 일깨워주고 기분에 취해 정량보다 많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적당히 분해해서 허리 아래 차곡차곡 쌓아두는 등, 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 〈오시모시스 존스〉는 이러한 상상을 보다 풍부하게 전개하면서 건강과 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프랭크는 귀여운 딸과 함께 생활하는 중년 남자. 그에게는 한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으니 아무거나 먹으며(심지어 땅에 떨어진 음식도 10초안에만 주워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없는 건강무신경이 그것이다. 그러나, 프랭크의 몸 안에서 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시모시스 존스"라는 백혈구다. 물론 주인을 닮아서 대책 없는 사고뭉치이긴 하지만 말이다. 영화는 이 백혈구와 달걀 노른자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균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신과 목숨을 건(?) 격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십이지장과 이마의 종기, 소뇌와 목구멍에 이르는 길고 긴 여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프랭크 몸의 곳곳을 탐험해 나간다.

혈관은 도로로, 신장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잘못 먹은 음식을 몸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배출버튼까지,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신선하고 유쾌하다. 보고 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영화. 그리고 새삼 내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고마워지는 영화.

아주 작은 실천, 너무나도 큰 기쁨! 텃밭 가꾸기!

고정미 · 인천, 국악강사

텃밭 가는 날에 한 번씩 끼어주는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 "야! 코딱지 만한 땅에 비해 밭 가꾸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아냐? 누가 보면 웃겠다."

그러면서도 또 덧붙이는 말, 자기 혼자 해도 너끈히 하겠다고. 그러나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코딱지 만해도 풀 한 번 뽑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닌데....

한 3평정도, 얼추 그 정도는 되겠다 싶다. 그 보다 작으면 작았지 크진 않다 싶다.

인희네, 은하네, 원희네, 정미네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그 코딱지만한 땅을 올 봄부터 가꾸어 왔다. 방울토마토랑 가지랑 고추랑 상추랑 감자랑 고구마랑 쑥갓이랑.... 주인아저씨도 재미있어 죽겠단다. 여러 가지도 심었는데 다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부지런히도 가꾸고 한 상 딱 벌여놓고 먹고 놀다 가니....

꼬마녀석들도 텃밭에서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한다. 벌레를 잡고 흙을 파서 소꿉놀이를 하며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와 온통 초록의 세상 안에 담겨서 너무나도 신나게 논다.

그야말로 '♬ 이마에 땀방울 송알송알/ 손에는 탯국이 반질반질/ 맨발에 흙먼지 울긋불긋/ 봄볕에 그을려 까무잡잡--♪' 노래 가사 그대로이다.

다음에 만날 날을 꼭꼭 다짐하고 나서야 헤어지기 싫은 그네들을 겨우 달랠 수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 인희네 딸네미 가형이와 정미네 딸네미 예슬이가 헤어지지 못해 예슬이네 집에서 두어 번 1박을 하기도 하였다. 설마설마 했던 가형이가 "엄마! 내일 아침에 데리러 와." 하자 이번에는 인희가 섭섭해서 "응--" 하며 울고 갔다.

예슬이의 담임선생님께서 (예슬어린이집의 꼬꼬 선생님) 맹장수술로 인한 일주일간의 병가를 마치고 아이들 곁으로 오시는 날 아침이었다.

예슬이랑 집 앞을 나서서 화원이 있는 곳으로 향하며 "선생님께 무슨 꽃을 선물할까?" 하고 물었더니 "가지꽃!" 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 "에잉? 뭔 가지꽃?"

아하! 어제 텃밭에서 본 가지꽃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인상이 깊었나 보다.

손에 잡아 놓았던 무당벌레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던 장면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지 "손에서 무당벌레가 날아갔지?" 하며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

달팽이를 잡아서 "하마 하마 춤춰라-"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로 뿔을 쑤욱 내밀었던 장면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 아이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으니까.

땅강아지를 보고, 지렁이도 만져보고, 열무잎에 잔뜩 붙어 있는 알들을 보고 과연 누구의 알일까 궁금해하던 일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텃밭에 갔다와서 보았던 것이랑 놀았던 것이랑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다보면 대견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

갈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상추랑 고추랑 방울토마토랑 호박들이 대견하고, 어른들 걱정하지 않게 하고 저희들끼리 너무나도 신나게 잘 노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비록 코딱지만하지지만 흙과 더불어 우리들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저 생명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뿌듯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코딱지만한 텃밭을 가꾸는 네 가족 모두의 마음이 나와 같으리라 생각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텃밭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평안하다.

아주 작은 실천 너무나도 큰 기쁨! 텃밭가꾸기를 다른 지부 모든 분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2002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

" 참여, 신명, 그리고 전진! "

기다리던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두 모여 뜨거운 우리의 열정을 확인하고 보육의 희망을 만드는 길잡이로서의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름 수련회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보고싶어요!

- **일 시** : 2002년 8월 24일(토) 오후 5시 ~25일 오후 2시
- **장 소** : 변산 원광대 수련원
- **참가비** : 정회원 1만 5천원, 아이 1만 8천원(만 3세 이상), 비회원 2만 5천원
- **준비물** : 세면도구, 회원에게 쓰는 편지, 수영복(있는 사람만), 기타 개인물품

일정표

	첫째날(8/24)	둘째날(8/25)
오전 8:00-9:00		기상, 식사, 잠깐 퀴즈
9:00-12:00		게임- 골든벨을 울려라
12:00-12:30		
		점심
오후 5:30-6:00	접수	오후는 지부별로…
6:00-6:50	저녁식사	
7:00-7:30	저녁산책	
7:30-7:40	여는마당	
7:50-8:50	집중 토론 - 우리회의 교육철학	
9:00-	공동체 놀이 길놀이→지부별 장기자랑→조별 나눔을 위한 놀이→추적놀이→대집단 놀이→모닥불 피워놓고…	
12:00-	취침	

•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육아도우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2 한국보육교사회 경상권 여름연수

— 유아문자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접근 —

학습지로 대표되는 유아문자교육의 현실은 우리아이들의 자발적 성장과정에서 오히려 문자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별다른 고민과 대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문자교육의 문제들을 돌이켜 반성해보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자란 어떤 의미이며 또 그것이 아이들의 생명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가서려면 어떠해야 할지? 아이들의 자발적 욕구와 흥미를 거스르지 않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언어문자능력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들을 소개하며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합니다.

일정표

9:30~10:00	들어가는 마당 (함께 배우는 노래)
10:00~12:30	(1강)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문자교육** - 교육적 근거(말하기,쓰기, 읽기, 문자배우기의 의미에 대하여) - 교사의 내면화와 창의적 조형작업, 실제활동의 경험 ■ **강 사** : 윤선영 -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 교육지원회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저 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첫걸음 번역서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의 놀이와 작업
12:30~13:30	점 심 식 사
13:30 ~16:00	(2강) **전통문화교육의 시각에서 풀어본 한글 교육** - 한글 익히기로 시작한 표현훈련 ■ **강 사** : 진병찬- 현)양산창조어린이학교 교사

- **주관** : 부산보육교사회(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 **일시** : 2002년 9월 8일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 **장소** :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종합센터 원경시청각실 (1층)
- **참가비** : 25,000원 (점심식사, 간식, 자료집 포함)
- **문의 및 접수** : TEL (051)554-9668 (부산보육교사회)
- **E-MAIL** : pdta2001@hanmail.net / FAX (051) 557-4216
- **참가비 입금** : 부산은행 241-01-000240-7 김명선(018-552-5116)
  농협중앙회 946-02-216183 김명선 (※선착순 마감/입금 후 전화 주세요.)

※ 부산보육교사회에서 준비한 〈유아문자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접근〉 강좌를 7월21일에서 9월 8일로 연기합니다.
강의의 한 꼭지를 맡으신 윤선영 선생님의 건강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겨 수술과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기대하는 강좌 내용을 7월21일 제 날짜에 진행할 수 없어 저희들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9월 8일로 일정을 변경하오니 널리 양해 바라오며 계속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금을 하신 분 중 9월 8일 참여가 힘드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환불해드립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통일자료집 [풍산이랑 삽살이랑] 자료집 발간

2001년 현장연구사전지원을 받은 경기지부 통일소모임에서 일년간 진행한 통일교육 내용과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실시한 인터넷활용 현장사례공모전에 당선된 통일주제 연구물을 묶어 통일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국보육교사회 02-2271-1548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3쪽/7000원/회원가 5600원(우송료별도)

남북 최초 합작 그림동화책 '령리한 너구리' 시리즈를 한국보육교사회에서 판매합니다.



■ **가격** : 총5권 1질에 27,000원(인터넷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 운송비포함)
■ **연락처** : 한국보육교사회 02-2271-1548
■ **신청방법** : 우리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위의 연락처로 전화, 책 받을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남한 친구들아! 난 북에서 온 너구리란다
· 남북의 개구쟁이들은 똑같아요.
· 반갑습네다.

북한에서 〈령리한 너구리〉가 남한의 친구들을 찾아왔다. 북한 '평양창작집단'의 조재식 작가 등이 글을 쓰고, 리대복, 리선규 화가 등이 그림을 그린 북녘 최고의 인기 만화영화인 〈령리한 너구리〉 시리즈를 남한의 두리미디어가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계약해 책으로 발간했다. 두리미디어는 이 책 1,000질을 북한 어린이에게 기증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동시에 이 책을 보게 됐다.
〈령리한 너구리〉는 너구리가 과학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깨닫게 한다. 과학적 사고력과 창조력을 높여 주는 북한식 영재 교육서다.
먼저 나온 〈물놀이 장에서〉와 〈장애물경기〉 등 5권은 대기압의 원리와 더운 공기의 상승 원리,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원리, 수소가 공기보다 가벼운 이유 등을 알게 한다.
이 책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남한에서는 거의 사라진 구수한 토박이말이 그대로 나온다는 점이다.
"아찔하게 높이 솟은 기묘한 바위우에 자리 잡은 물놀이 장은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참 좋은 물놀이장입니다. 오늘은 이 물놀이 장으로 우리의 우리의 다정한 세 동무가 직승기를 타고 물놀이하러 갑니다. 해양모자로 부채질을 하던 공이 배를 슬슬 내려 쓰는 것을 보니 벌써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이 책에서 '바위 위에'가 '바위우에'로, '헬리콥터는 직승기로 표현됐다. 해양모자도 듣지 못한 말이다. 북한에선 '챙이 긴 챙모자'를 '해양모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밖에도 몸까기(다이어트), 곱등어(돌고래), 시창밖(창문 밖), 쇠메(쇠망치), 개끼는지(사례가 들었는지), 깨고소해(고소해), 모지름을 쓰다(발버둥을 치다)는 표현 등이 고소한 맛을 전해준다.
아동문학가 이오덕씨는 추천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구수한 우리 토박이말을 다 같이 익히게 돼 (남북의 어린이가) 정다운 한 형제가 되고, 한 겨레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씨도 "개구쟁이들은 북이나 남이나 말썽도 부리면서 서로 꾸짖고 타이르고 도와주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남북의 아이들이 이런 훌륭한 그림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조연현 기자 cho@hani.co.kr

해양생태공원

인천 남동구에 자리한 해양생태공원은 자연환경을 살리고 천연기념물 조류, 육상곤충류, 담수대형무척추동물 등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입니다.

운영기간 : 4월-10월 (단체는 상,하반기로 나눠 3월과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운영시간 : 오전 9:00- 17:00

문의 : 032-453-2670

우리 풀꽃으로 접근해 본 자연친화적 통합교육

일시 : 2002년 7월 27일(토) 09:30~16:00

장소 : 상남국제회관(부산대학교 앞)

내용 : 우리 풀꽃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의 여러 영역 놀이, 문학, 미술, 음악 등을 통합적으로 다룸

참가비 : 28,000원

문의 : 051-531-2460

제2회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공모전

1. 목적

○ 보육관련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보육담당 관련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관악구 현실에 적절하고도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창의적인 자료를 공유함에 있음.

2. 사업개요

1) 응모 자격

①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② 보육관련 학생 및 일반인

2) 프로그램 주제

○ 부모교육 프로그램

ex) 아동 발달 영역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 관계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를 이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가정방문, 참여수업, 가정통신문, 자원봉사 등)

3) 프로그램 적용 대상

○ 영아를 둔 부모

○ 유아를 둔 부모

4) 접수방법

① E-mail(kaeducare@hanmail.net) 접수

② 플로피 디스켓 접수(직접 방문 및 우편 이용)

③ 서면 접수(직접 방문 및 우편 이용)

3. 시상

1) 상금 : 70만원

① 최우수상 : 1작 300,000원

② 우수상 : 1작 200,000원

③ 장려상 : 2작 100,000원

3) 심사기준

- 연령적합성
- 주제 부합성
- 현장적용 가능성
- 창의성
- 흥미유발성

4. 추진일정

○ 접수 : 2002. 8. 12(월)~8.17(토)

○ 심사 : 2002. 8. 19(월)~8. 24(토)

○ 심사발표 : 2002. 8. 26(월)

※ 관악구청과 본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시상식 : 2002. 9. 13(금)

5. 행정사항

○ 본 공모전 제출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본 센터가 소유함.

○ 수상작은 본 센터에서 추후 발간 될 부모교육 모형집에 수록됨.

영유아를 위한 수학 교육

비고스키 이론에 의해 재조명된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수학교육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 책 속에 숨어있는 수학개념을 찾아내어 보다 구체화된 수학활동으로 제시하여 수학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강좌.

일시 : 2002 년 07 월 24 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주최 : 서울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강사 : 임수양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문의 : (02) 772-9814~9

아동 정신 건강 무료 상담실 운영

부산광역시 진구 소재 양정삼성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아동의 문제 행동 및 특수아동에 대한 상담을 전문상담 위원을 통해 자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대상 : 만1세-초등학생

방법 : 전화 접수 후 상담일자 결정
(☎051-852-4233~4 , FAX051-861-1348)

〈전문 상담 자원봉사 위원〉

아동 문제 행동 상담

■신혜영 교수 (부산여자대학 유아교육과)

특수 아동 상담

■안성우 교수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우리네 아이들' 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을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시고자 하는 회원, 자료회원 여러분은 받으실 분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중앙 사무국에 알려주십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소식

- 5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한국의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정보육모제도 도입의 문제와 영리보육영역이 공보육영역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5월 6일 성공회 성당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대통령아들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통령의 사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8일 서울시한보련사무실에서 지방선거대비 보육정책요구안 마련을 위한 연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 · 놀이방연합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가 참석하였고 본회에서는 이윤경공동대표와 김진숙 서울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5월 9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위촉과 회의에 본회에서는 이인희 정책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인희 정책위원은 이후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 5월 10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 〈유아교육기관평가제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1일~12일 제2차 운영위원회의와 1차 운영위원 훈련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 5월 13일 서울YMCA에서 주최한 유아용품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4일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하구치, 에다모토, 김혜영 선생님과 본 회 집행위, 그리고 광주의 한일보육교류협의회 박말신, 이승희 등의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5월 14일 인천지역 건강교사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인천지역은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건강교사의 역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 5월 1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주최한 유아성폭력예방비디오 제작을 위한 기획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8일 사회복지대학원 연합에서 주최한 연합학술제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살핌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보육〉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 5월 20일 김민석서울시장후보의 여성정책담당자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는 면담을 통해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본 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5월 21일 포항여성회에서 주최한 주부대상 시민강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정책의 과제〉 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5월 22일 한국여성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과 출산, 육아〉에 관한 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22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역보건위원회의 정기 세미나에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건강관리에 대해 본회 이경녀 사무국장과 김수연 선생님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 5월 24일 이윤경공동대표가 보건복지부 보육

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육실습을 필수로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자격불인정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하였고 보육정책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5월 25일 1차 조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5월 29일 복지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6월 3일 관악지역보육사랑방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으로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11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타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강좌로 1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흐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를 실시하였습니다. 101명의 예비보육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이윤경공동대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6월 13일 조직부장연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지부의 조직부장들이 모여 지부별 조직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6월 14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자문단 회의에 이인희 정책위원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특수보육교사양성에 대한 건과 보육종합발전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6월 18일 복지부장관앞으로 보육교사처우개선과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받은 서명과 요구안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 6월 18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타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강좌로 2강 1우리 옛 노래와 놀이1를 실시하였습니다. 45명의 예비보육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최은하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6월 21일 2차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석민 강사를 모시고 조직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6월 21일 28일 7월5일 3회에 걸쳐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 영아교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명의 현장영아교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 6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여름수련회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 6월 26일 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6월 26일 서울지역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질의와 응답,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6월 28일~ 29일 양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본회 주관의 2002년 서울 여성복지학교가 실시되었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1박2일간 빡빡한 일정에도 열심히 공부하신 참가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 5월 여성제가 17일-19일 금남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카톨릭센터앞에서 3일간 광주여성사진전과 차별철폐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 5월 26일 스승의날 자축 행사로 보성 녹차밭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 17일, 18일 이틀간 광주전남지부도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글을 바람개비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꾸며보았습니다.
- 6월 3일 광주전남여연에서 주최로 광주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금 지부장님이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 6월 29일- 7월 6일 영아보육교사교육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지부

- 5월 15일 "제3회 보육교사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자축하며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5월 22일, 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어린이 인권영화(애니메이션)를 상영하였습니다. 상영내용목록은 1.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담은 단편 만화영화 모음) 2. 우리가 다시 그려요! (공동체 교육을 위해 제작된 단편 만화영화 모음) 3. 령리한 너구리 (북한 만화영화) 이었습니다.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선전전에 동래, 금정지회가 연대하였습니다.

서울지부

- 5월 25일에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에서 스승의날 자축연이 있었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재미난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6월 23일 일요일 산 좋고 물 좋은 청계산의 '참나무와 도토리' 에서 회원의 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천연염색을 배웠는데 면으로 직접 염색을 해보고 쑥개떡도 쪄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지부

- 5월 18일 스승의날 자축 회원모임이 있었습니다.
- 6월 15일 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부는 회원의 날에 새로운 노래를 배운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서울 한미 어린이집의 오윤정 선생님이 드디어 석사논문이 통과되었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하시더니 드디어 석사가 되었군요. 논문주제는 옛이야기에 관한 거랍니다. 다음에 우리네 아이들에 소개해 주실 거지요?
- 지난 6월 25일 인천 샘터어린이집의 이진실 선생님이 둘째 딸을 출산했답니다. 좀 무리하여 아이가 일찍 나왔다고 하네요. 둘째 아이도 선생님 닮아 우아한 여성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 6월 29일 인천의 김계임 선생님의 둘째 아이 돌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6월 8일 부산의 까치(김정해)선생님 둘째 딸 재은이 첫돌이었습니다. 축하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의 조직부장인 안미경선생님이 7월 11일 사내아이를 꺼냈답니다.(?) 제왕절개로 무려 4kg의 묵직한 남자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임신초기부터 몸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이 매우 기쁘네요. 아이가 잔병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엄마는 관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 김정현 선생님의 딸아이 돌이랍니다. 이번에는 돌잔치 소식이 많군요. 멋진 여성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 부산의 이미정 선생님이 보육교사를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장 파는 일이랍니다. 저의 상상을 뛰어 넘긴 했지만 혹 서울에서 신청하면 얼마 만에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이 시작하는 길에 늘 즐거움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부산의 문성주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역시 또 저의 상상을 뛰어 넘어 피부미용을 배우신답니다. 저도 선생님 돌아오면 모공관리에 대해서.... 낯선 곳에서도 늘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8월부터 부산에도 보육정책위가 움직인답니다. 김명선 부산지부장님과 나선임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이 정책위원을 하신다는군요. 어째 부산 보육조례 제정이 앞당겨질 듯 하네요. 열심히 활동하세요.
- 서울의 교육부장을 하시던 박영미 선생님이 일본 동경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남편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집도 내놓고 살림도 처분할 건 처분하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서울에서 동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참에 동경에도 저희 지부를 하나 세워야 겠습니다. 영미 선생님! 동경 가셔서 건강하게 잘 사시고 다불어 연화도 벌어오세요.
- 인천의 이경미 선생님이 정읍으로 이사를 하신답니다. 정읍에서도 씩씩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 경기의 김실이 선생님이 무좀으로 수술을 하셨답니다.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하면 완치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안타깝게도 부산의 사상지회를 책임지셨던 김향진 선생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주감어린이집도 그만두고 당분간 회원 활동도 쉬신다는군요. 부디 쉬면서 몸을 충분히 회복해서 밝은 얼굴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의 장정숙 선생님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중이시랍니다. 환자분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의 아픔도 아주 크지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 인천의 권오경 선생님이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6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6월 완납
〈인천지부〉 6월 완납
〈경기지부〉 6월 일부
〈부산지부〉 4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6,7차 10만원, 김숙자 10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2만원, 심선경 4만원, 하미선 3만원, 남향숙 1만원, 김지희 12만원, 조선경 1만원, 이성혜 6만원
〈자료회원〉
갓골원어린이집, 이승연, 최은경
〈후원해 주셨습니다.〉
은수미 2만원, 남향숙10만원, 이은애 30만원, 원명순 2만원, 김종원 2만원, 장성일 1만원, 박재형 2만원, 류호선 10만원, 임태형 2만원, 엄소현 2만원

본회 5 · 6월 활동일지

5월	6일	집행위
	11일-12일	2차 운영위 및 1차 운영위원 훈련프로그램
	14일	건강교사모임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행사 기획회의
	24일	집행위
	25일	조직위원회 1차 회의
6월	8일	교육위원회 2차 회의
	11일	교육센터 강좌
	12일	집행위
	13일	조직부장 1차 연석회의
	15일	교육센터 강좌
	19일	집행위
	2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
		교육센터 강좌
	22일	3차 운영위 회의
	26일	서울지역건강교사모임
	28일	교육센터 강좌
	28일-29일	서울 여성복지학교

편집부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는 7월입니다. 예전 7월은 1년으로 놓고 보면 비교적 한가한 달이었는데 올해 7월은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넘쳐나는 일들로 정신이 없어 사람들과도 제대로 만남을 갖기 어렵군요. 아마도 월드컵 땜에 이 일 저 일이 밀려서 그런 듯 합니다. 월드컵이 좀 밉기도 하군요.
그러나 8월이면 여러분과 만난다는 기대로 7월도 거뜬히 지내 볼랍니다.

이번 호 육아일기는 필진의 사정으로 쉽니다.

이번 호부터 새로운 꼭지가 생겼습니다.
영아들의 하루는 영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을 담은 '아이들과의 하루'로 얼굴이 바뀌구요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라는 문화 탐방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집필은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해 주십니다.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서 사업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